열정이 넘치는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BOIN HIGH SCHOOL MAGAZINE

Play Boin 輔仁 2021

CONTENTS

01. 들어가며

06 인사말 | 김석한 이사장님
08 인사말 | 김종환 교장 선생님

02. 보인고 이모저모

12 이재균 선배님 인터뷰
16 김태훈 선생님 인터뷰
18 정은지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
21 보인고 축구부 소식

03. 우리들의 글솜씨

24 백일장 우수 작품
29 자기주도학습보고서 우수 작품
31 교과 스터디, 멘토링 보고서 우수 작품
32 경제 경시대회 결과 보고서 우수 작품
36 대입 합격 수기

04. 기획:이것이 궁금해요

44 오징어 게임 속 상금 456억원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46 비트코인, 제대로 알고 하자
48 통계의 오류
49 전기차의 미래
50 시간, 인생과 흐름
51 스포츠 속 빅데이터
53 맞춤형 화장품 시대 본격화
54 1초를 재는 방법(물리학적 관점)
56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은 무엇일까
58 성별혐오와 싸우는 방법
60 모든 감정은 소중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05. 수업탐방

64 열정 한가득 미술 수업
– 함께 예술프로젝트
– 우리학교 선생님 캐리커쳐 그리기
– 스승의날 엽서
– 아트콘테스트 수상작

06. 우리들의 생각

74 앙케이트(1~3학년)

2021 보인고 교지·통권 제23호
발행인 | 교장 김종환 기획·취재 | 교지편집부(지도교사 이가영)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9길 18 전화 : 02)2043-6021 · http://www.boin.hs.kr
기획·편집 :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02)2285-3366·http://schoolpt.co.kr

Boin High

들어가며

School

우리는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혼
개봉을 기다리는 두근거리는 필름이고

문성해, 「조조 영화를 보러 가다」 중

B O I N H I G H S C H O O L

THINK BIG! DREAM BIG!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New Normal'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면 흐름에 저항하는 어리석음보다 흐름을 읽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인지를 읽어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일상에서 축적된 경험을 변화의 계기로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New Normal'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니라면 흐름에 저항하는 어리석음보다 흐름을 읽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인지를 읽어내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언택트', '메타버스', 'AI'등 이제는 익숙해진 개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각에서 변화를 분석하고 기회를 창출할 줄 아는 과감한 도전과 실천 정신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지난 2년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을 쏟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비대면 학습 상황에서 새롭게 정립한 습관을 무기로 2022년을 철저히 준비한 학생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인의 학생들은 모두 後者여야 합니다.

생각의 크기가 사람의 미래를 결정

전 세계 경제 패권국인 미국 내에서도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기업들을 묶어 'FAANG'이라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시가 총액 TOP5를 이루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업들의 현재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과 발전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애플도, 아마존도 모두 조그만 개인 차고에서 시작됐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초기부터 막대한 자본력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지배력을 강화했던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앱 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소수의 창의적 아이디어, 투자유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 변화된 소비자의 일상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던 꿈에 대한 열정, 원대한 상상력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각자의 생각과 꿈의 차이가 분명 먼 훗날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크게 하고 꿈을 크게 꾸는 데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어떠한 제약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약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자주 학교를 찾아 여러분의 일상을 잠시라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못함이 매우 아쉽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의미 있는 기사와 내용이 교지를 가득 채울지 기대됩니다. 교지 편집부 학생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보인중 · 고등학교 이사장 김 석 한

B O I N H I G H S C H O O L

학교교육 중심은 학생

2021년 한해,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보인고등학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한 것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제도, 달라지는 교육 과정 등 쉼 없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보인고등학교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가 과감히 도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21년 한해,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더믹 상황 속에서 보인고등학교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비한 것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변화하는 입시 제도, 달라지는 교육 과정 등 쉼 없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보인고등학교가 되기 위해 저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가 과감히 도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위기 속에서 늘 새로운 기회가 싹튼다고 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한 사람만이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교는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의 교훈 아래 당당한 실력과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 시민을 기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위해 인성이 바른 사람을 키우는 학교, 참된 실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학교,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현상의 변화만을 쫓다 보면 그 본질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변화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중심은 학생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직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에서 성장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고,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코로나 19라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학생 누구나 자신의 진로와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학교가 되도록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직원들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활력있는 교육 활동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문화를 발전시키겠습니다. 2022년,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 학교와 가정이 깊은 연대 의식을 갖는 학교, 학부모님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보인고등학교를 그려 봅니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 종 환

Boin High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배는 항구에 머물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파울로 코엘료, 「순례자」 중

School

2

보인고 이모 저모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1억 기부 **이재균**

2021년 11월, 30여년 동안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며 청렴 정직한 공직 생활을 해 오신 이재균 선배님(보인상업고 11회)께서 후학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의 멘토 장학금을 기부하셨다. 다음은 이재균 선배님과의 인터뷰 내용으로, 인터뷰는 안타깝게도 선배님의 건강 상의 이유로 서면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질문1)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배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균 선배님 저는 지금의 보인고등학교의 전신인 보인상업고 졸업생(보인상업고 11회)으로 학교와 관련해서는 고교 재학시 전국중고등학교 대표 학생회장을 역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업 후 검찰 공무원이 되어 30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여 50 후반부터 법무사로 일하여 왔습니다.

학생질문2) 졸업 후에도 보인고등학교와는 어떤 인연을 맺고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재균 선배님 졸업 후에도 모교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동문회발전기금모금 위원장을 맡아 동문회 사무실 마련 등 제 소임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학생질문3) 1억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재균 선배님 장학금 기부와 관련해서는 재학생 후배들보다는 저와 같은 졸업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지만, 모교 동문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모금도 더 많은 동문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나름 동문들에게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는 자극을 주고 싶어 이렇게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질문4)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하신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기부와 관련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균 선배님 제가 결코 돈이 많거나 잘나서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2015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많이 회복되긴 하였으나 아직 건강도 예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모교를 위한 마음이 제게 컸던 것 같습니다. '모교'라는 말처럼 자식이 부모께 그러하듯,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대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고, 다른 동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장학금 기부를 외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네요.

다음은 이재균 선배님 인터뷰와 관련하여 송태호(보인상업고 29회) 선배님이 보내주신 글로, 이재균 선배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지면을 할애하여 싣게 되었다.

이재균 선배님께서는 학교 시절에도 중고등학교 전체 연대장으로 활동하시며 리더십이 남다르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거의 만능으로 축구, 럭비, 등산반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당시 보인상업고등학교 산악회는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애교 정신이 남다르셨고 졸업 후에는 대검찰청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시어 이른바 권력기관이라는 곳에서 청렴 정직한 공무를 수행하셨는데, 재직 중 검사장과 장관으로부터 청렴 공무원으로 칭송을 들으면서 근무하셨습니다.

제가 동문회에 관심을 보일 때는 당시 국회의원을 지내시던 14회 김현욱 선배님께서 총동문회장을 하고 계실 때로 기억됩니다. 당시 동문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던 중 이재균 선배님께서 주동이 되어 동문회 중흥 노력을 하셨는데, 보인이사회 (약칭 보리회)를 만들어 뜻있는 선후배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동문회 기금 모금에도 전력하셨습니다. 아울러 13회 박응래 선배님과 동문 산악회를 통한 선후배 규합의 방법으로 산악회 활동을 활성화시키셨는데 지금도 보인동문산악회는 연면히 이어져 선후배 산행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언제나 앞에 나서기보다 물밑작업을 통한 동문회 발전에 변함없는 애정을 기울이셨습니다.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를 수없이 받으셨으나 번번이 후배들을 앞세워 고사하셨기에 총동문회장으로 모시지 못한 것은 지금도 큰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배님의 모교 사랑과 후배를 보살피는 사랑은 과장 없이 하해와 같은 강물로 90에 이르신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옷가지나 다른 다양한 선물로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후배들을 못 말릴 정도로 챙기고 있으십니다.

'보리회'를 소개합니다.

1991년 보인이사회가 구성되었는데, '보인이사회'를 줄여 약칭으로 '보리회'로 불렀다고 합니다. 단순히 명칭을 줄인 것이 아니라 '보리 고개를 넘자'라는 뜻도 반영하였는데, 어떤 힘든 고난이라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리회'는 심상학 회장님 재임 시 축구부 전용 버스 구입뿐만 아니라 동문회 사무실 구입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

Play Boin

BOIN HIGH SCHOOL MAGAZINE

보인고등학교 3학년 12반
담임 김태훈

학생질문1)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학년 12반 담임교사 지구과학과 김태훈입니다.

학생질문2) 3학년 담임이셨는데, 3학년 담임을 하며 가장 신경 쓰신 부분은 무엇일까요?

진학입니다.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 책임감을 느끼며 학생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어떻게 최선으로 드러내 줄 것인가는 물론이거니와 매해 바뀌는 입시전형(2022문이과 통합선발)과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방향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질문3) 고3 담임교사로서 예비 고3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신학기에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대입 방향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정시 가채점 배치표 정도는 볼 수 있게 공부하시기 바라며 모르면 물어봐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시 가채점 배치표는 원점수 배치표 혹은 4개 교과 영역에 대한 백분위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국어 1컷(96), 수학 1컷(96), 물1 1컷(96), 지1 1컷(96)이라고 칩시다.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96이며, 백분위합은 국어96+수학96+탐구2개 평균96 = 288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시 가채점 배치표상 국수탐 백분위 288이면 서성한 안정권이며 연고대 공과대학은 소신, 도전권이 됩니다.

3학년이 되면 1년간 7회의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수능) 상기 모의고사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평가는 당연 6월, 9월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3, 4, 7, 10월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로 재수생이 응시하지 않기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둘 째, 진학지도를 하며 실제 수능 성적은 6, 9월 평가원 결과에 점수가 수렴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통상적으로 수능은 더 떨어집니다.)

〈2022학년도 6월 모평 총 응시자수: 399,818명 / 졸업생 및 검정고시: 57,188명〉

〈2022학년도 9월 모평 총 응시자수: 401,705명 / 졸업생 및 검정고시: 76,967명〉

〈2022학년도 대수능 총 응시자수: 448,138명 / 졸업생 및 검정고시: 129,445명〉

보인고 3학년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대다수의 선호 학교는 건동홍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동홍 지원권은 평균 백분위 90, 백분위 합 270입니다. 이 점수를 맞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2등급으로 맞추면 됩니다. 경험상 6평과 9평에서 모든 과목을 2등급 이내로 맞춘 학생의 3월, 4월 모의고

사 백분위 합은 280~297인 학생이었으며 6회의 모의고사에서 280~290을 맞았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크게 떨어진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냉정하게 진단하여 대입을 준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질문4) 내신 백분위가 50% 미만이고, 정시파이터인 학생입니다. 지금 이대로 정시에 올인해도 될까요?

저는 2012년부터 교직을 시작하였고 보인고등학교에는 2019년부터 근무하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수험생들과 여러 학교의 정시파이터들을 만나보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정작 정시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시험이 끝난 후 시험이 끝났다며 당당히 다함께 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첫 째, 현재의 실태를 냉정하게 진단해야하고 둘 째, 정시에서 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나다군 하나 정도는 안정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평소에 자신이 가장 잘 받은 점수와 등급을 수능 때 받을 점수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3번 답변을 참조)

각설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반은 맞지만 반은 아니다" 입니다. 2022대입부터 향후 "서울 주요 대학 정시 선발인원은 점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시 준비에 충실함은 물론이지만 수시전형 중 하나인 논술전형도 준비하든 하지 않든 수시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 자체고사인 논술고사는 대부분의 대학 시험 범위가 수학입니다. 여대와 의예과를 제외하면 과학 논술을 보는 서울 주요대학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건국대입니다. 아울러 성균관대의 경우 수1, 수2 수준으로 쉽게 출제되지만 영어 수능 최저가 높다는 특징이, 연세대의 경우는 유일하게 지구과학 논술이 존재하며 수능최저가 없다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정시파이터라 할지라도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적극 지원하길 권장합니다. 실제 논술고사의 경우 2021년의 경우 자연계에서 홍익대, 시립대,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상향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수능을 더 잘 보면 시험장에 안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시파이터라는 명목 아래 1년에 1회 시험 보는 정시에 올인함은 물론이고 본인에게 맞는 대학별 자체고사인 논술고사도 지원하여 대입 합격의 기회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정은지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

20101 강민수, 20127 이우진, 10810 나종하

강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부장 강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양사 선생님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매일 먹잖아요? 그런데 이 급식을 계획하고 만드시는 영양사 선생님, 조리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일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알리려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지 영양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3년 정도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 급식 식단을 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일단은 중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교육청에서 지정한 남자 청소년 관리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이런 영양소들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정해줘요.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식단과 밸런스를 맞춰서 식단을 작성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 기호도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신경 쓰는 거는 중식보다는 석식을 조금 더 기호도에 맞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석식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 것만큼 맛있게 해주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외식 트렌드나 이런 것도 조금 공부를 해서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강 '이것만큼은 우리 보인고가 백종원씨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는 메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네. 사실 질문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우리 학교 급식 중에서, 제가 이건 좀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백종원씨보다 낫다고 생각되는...(웃음) 메뉴가 떡볶이에요. 떡볶이가 워낙에 학생들에게 기호도 있는 메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떡볶이라는 요리가 은근히 좀 어렵잖아요. 혹시 떡볶이 만들어 보셨나요?

강 아...네. 중학교 때 학교에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A 네, 떡볶이가 은근히 어려운 메뉴인데 저도 사실 백종원씨 레시피 같은 거 보면서 집에서 따라 만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거보

다 우리 학교 떡볶이가 조금 더 맛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Q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으신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메뉴에는 채식 메뉴가 있어요. 최근에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교육청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채식 메뉴를 제공하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채식 메뉴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아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잠깐 시도를 했었는데 채식이 크게 이슈화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맛이 안정이 안 된 완제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레시피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기도 해서 잠깐 했다가 다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빠르면 내년부터 채식 메뉴를 내 볼 생각입니다. 채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완전 채식인 '비건'까지는 안 되더라도 유제품이나 계란까지는 허용하는 선에서 학생들의 기호도를 맞추어서 메뉴를 내보겠습니다.

Q 보인고 영양사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경험하신 어려운 점, 힘든 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우리 학교는 식수 인원이 1600명 정도로 좀 많은 편이에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하는 학생이 많아서 (식수 인원이)조금 적은데 원래는 1600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메뉴를 중식에 주기 힘들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식수 인원이 줄다 보니까 볶음밥같이 손은 많이 가지만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조금 더 자주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전면 등교가 계속되고 하면 지금보다 식단이 조금 아쉬워질까봐 걱정이 조금 돼요.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지난달에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갑자기 2학년 등교가 중단되었을 때, 식재료가 남게 되는 것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A 네. 그날 아침에 물건이 다 들어오고 조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교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2학년 애들 다 집에 갔다고.(웃음) 그때 너무 당황했는데, 이미 조리를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하고, 또 식재료도 다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식재료는 일단 그날 들어온 것들은 남아 있던 학생들에게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했어요. 고1, 고3 학생들에게 평소보다 많이 주는 식으로 해결했고, 다음 날부터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식재료들은 취소가 가능한 것들은 다 취소했던 것 같아요.

Q 갑자기 급식 메뉴가 바뀌는 경우, 그 이유는 주로 무엇인가요?

A 보통 주된 이유는, 납품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어떤 메뉴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공산품을 메뉴로 정해놓고, 이제 그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공장이 망해서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이제 조금 더 좋은 메뉴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도 있는 편이에요.

Q 급식실에 있는 급식 메뉴 건의란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A 아, 급식실 입구 쪽에 보시면 칠판이 하나 있는데 저 칠판을 저희가 2019년에 설치를 했어요. 급식 메뉴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치를 했는데, 이제 설치한 해에는 학생들이 많이 써주고 저희도 그 내용을 다음 달 메뉴에 반영을 해 줬었어요. 근데 이제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잘 못 나오고, 그러다 보니 좀 흐지부지된 감이 있죠. 그래도 학생들이 급식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먹고 싶은 메뉴가 있거나 하면 그냥 편하게 와서 어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강 보인고에서 영양사로 일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셨던 적은 언제인가요?

A 네, 일단 맛있는 메뉴가 나간 날에 학생들 반응이 좋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그냥 본인들끼리 급식 메뉴에 대해서 뭐 '오늘 급식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희는 다 듣고 있거든요. 또, 보통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는 생선이나 나물 같은 메뉴의 조리 방식을 좀 바꿨는데 학생들이 예전보다 더 잘 먹는 경우에도 보람차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강 '영양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일단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해서 영양 관련된 과목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2주 동안 외부에서 실습을 하고, 실습이 끝나면 영양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영양사 국가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합격을 하면 영양사 면허증이 나오고, 영양사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사가 되면 학교 외에도 복지시설, 병원, 교정시설, 유치원, 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강 급식을 먹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생선, 나물 같은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아예 건들지도 않는 경우가 좀 있는데(알레르기가 있는 학생 제외하고요), 저희도 최대한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한 번이라도 먹는 걸 시도해 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급식에 대한 의견이 그날 그날마다 있으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저나, 다른 영양사 선생님께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둘 모두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강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인터뷰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인터뷰를 위해 급식실을 방문한 우리 부원 3명 모두에게 음료수를 나누어 주셨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다. 우리 보인고 학생들도 선생님 말씀처럼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먹으려고 시도해 보고, 급식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영양사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앞으로 급식을 먹을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었으면 한다.

We, The Best!!

보인 축구부 소식

보인 축구부에 대한 소식입니다. 1970년 보인중학교, 1980년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창단 이래, 보인 축구부는 우수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1년 한해도 보인 축구부 선수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먼저, 전국 고등 축구 리그(경인리그)에서 우승하였고, 제54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에서는 결승전 상대로 프로 산하 축구의 대표 고등학교인 포항제철고를 만나 연장전까지 0-0 균형을 깨지 못하고 팽팽한 경기를 진행하다 승부차기 끝에 4-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학원 축구의 대표 보인고와 프로 산하 축구의 대표 포항제철고 간의 자존심 대결이었기에 경기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그 결과로 값진 승리를 얻었기에 뜻깊은 실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인 축구부는 해마다 우수한 진학 실적도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은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대학보다 직접 프로 구단에 입단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프로 축구 구단 FC 서울, 이랜드, 부산아이파크 뿐만 아니라 해외 리그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포르투칼 2부 리그에 많은 선수들을 입단시키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한편, 한양대 4명 진학 등 축구 명문 대학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선수들을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Boin High

어느 분야든 대다수의 일하는 이들은
화려하지 않고 튀지도 않는 일들을
묵묵히 반복하고 있다.

그러기에 세상은 호들갑스러운 탄식과
성급한 절망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묵묵히 굴러간다.

문유석, 「미스 함무라비」 중

School

3

우리들의 글솜씨

운문
장원
(1학년)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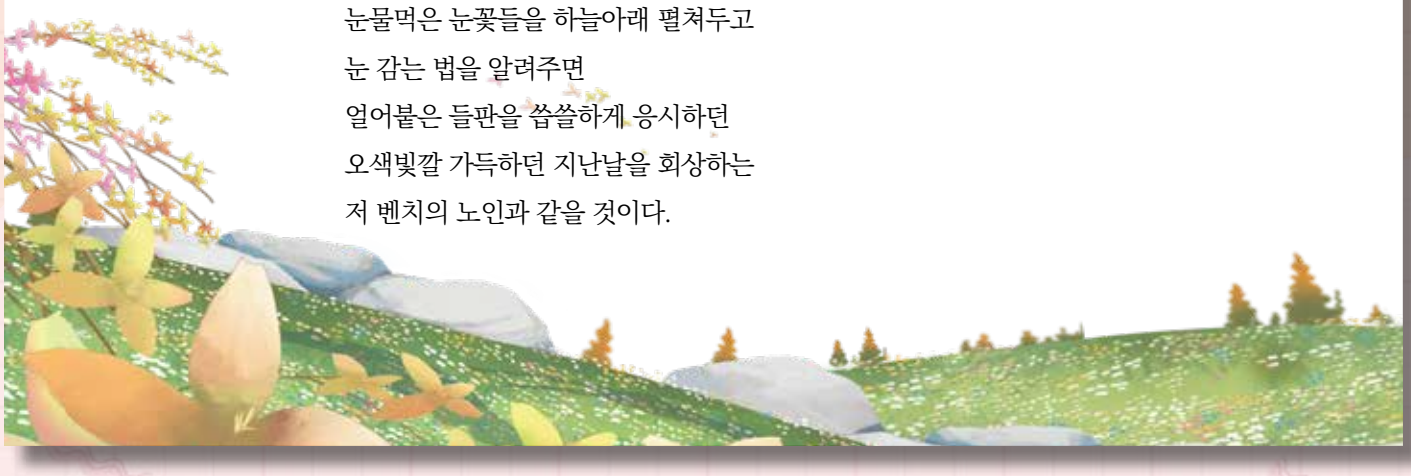
10912 문현웅

간지러운 꽃내음들 주변에 둘러놓고
웃는 법을 알려주면
새순들 피어나고 누구보다 활기차던
평온하고도 가장 역동적인
아이와도 같을 것이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그늘아래 앉혀두고
우는 법을 알려주면
한창 뜨거운 삶의 시작에
긴 우울과 짧디 굵은 열정 사이의
우리의 청춘과 닮아있었다.

쏟아지는 낙엽들을 가지런히 모아두고
잊는 법을 알려주면
진달래와 냇물을 고이 묻은 뒤에
다시 날 새싹들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우리 부모님과도 같은 것이다.

눈물먹은 눈꽃들을 하늘아래 펼쳐두고
눈 감는 법을 알려주면
얼어붙은 들판을 씁쓸하게 응시하던
오색빛깔 가득하던 지난날을 회상하는
저 벤치의 노인과 같을 것이다.



산문
장원
(1학년)

계절과 계절이 만날 때

10320 이승모

우리 곁에는 사계절입니다. 우리의 살갗에 물드는 벗의 향과 귓바퀴를 맴도는 매미 소리, 머리 위에 머무는 붉은 잎들과 눈에 비치는 눈꽃입니다. 가만, 조심히 눈을 뜨고, 귀와 코를 열고, 손을 올려놓고 스치는 감각을 느끼면, 거기엔 또 하나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 그 속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당신의 계절을 묻습니다. 마음의 창에서 보이는 풍경을 묻습니다. 당신의 창 밖의 선홍빛의 벚나무와, 매미가 붙어 울창한 음을 내는 떡갈 나무를, 들판의 황운같은 은행나무 같다가도 가지의 마디들이 훤히 내비쳐 쌓인 눈 속에 숨으려는 겨울의 나무가 보입니다. 우리의 속, 그 속엔 우리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 담소를 몇 마디씩 나눠보면, 그 사람의 계절이 문득 보입니다. 따뜻한 봄과 선선한 가을빛을 띠는 사람도 있지만, 때론 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머금거나 연민이 느껴질 정도의 고된 추위를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봄과 봄이 나누는 개화의 만담부터 여름, 가을, 겨울의 인연에서는 중첩된 계절의 색이 짙어지지만, 여름과 겨울이나 봄과 가을의 연에서도 어우러진 계절의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인연은 계절 간의 맞물림입니다. 계절과 계절이 만나 풍기는 향과 경치, 온도나 기후, 사람들이 입고다니는 옷의 기장까지 모두 인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계절은 주위의 계절과 다릅니다. 여름의 해가 쨍한데도 목도리에 장갑까지 겹겹이 쌓은 사람이나, 겨울에도 맨살을 드러내고 다니는 여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 속 계절의 날씨는 변덕스러워, 저녁에 내리던 장마가 새벽엔 첫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잊고 지내다 창 밖에서 어느새 바뀐 계절의 풍경이 반갑듯이, 우리도 계절의 변화의 '자연' 스러움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내면의 계절이든, 우리가 살아가며 톱니처럼 맞물려 잠시 머물다 갈, 혹은 오랜 시간 함께 맞닿아있을 연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처럼 변하게 된 다른 사람들의 또다른 온도나 날씨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찾아온 뒤로 지구엔 또 다른 지구온난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득 차오른 이산화탄소와 가스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 계절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열성을 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갑자기 열을 내고 짜증을 내며 서로 맞물리기 버거워합니다. 서로 떨어지게 되어 맞물릴 곳조차 잘 보이지 않는 요즘은, 더더욱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산문
장원
(2학년)

가을은 없다.

20611 남정우

"아버지 하늘이 보고 싶어요." 아이가 매일매일 나에게 하던 말이다. "제 이름은 가을인데 왜 가을 하늘을 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8번째 생일을 보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8살 아이의 생일 선물이라함은 놀이공원 가기, 레고 사기 따위의 것이여야 한다. 하지만 가을이에게는 하루, 하루가 기적과 같았다. "아이의 눈 속에서 망막모세포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면역관련 세포에서 기원하는 림프종도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런 안구내종양이 심화될 경우....." "그냥 암이라고 하면 되잖아!" 나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저렇게 줄줄이 설명하면 뭐가 달라질까, 어짜피 아이는 빛한줄기 받지 못하고 사라질텐데. 나는 감정을 다시 잡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모르게...." "괜찮습니다. 저도 아이를 잃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러면 가을이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말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의사가 대답하지 않기 바랬다. "길어야 한달입니다." 한달, 30일, 720시간, 43200분, 2592000초, 어찌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가을이에게 가을 하늘을 보여주기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 생각했다. 나는 마치 시간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을 것 마냥 시간을 원망했다. 하늘을 원망했다. "제게 가져가신 것은 아내 하나로 안 되겠습니까? 제 모든걸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가을 하늘은 아니더라도 가을 바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핸드폰으로 현재 가을인 호중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가을아, 이제 안 아파도 돼. 안 힘들어도 돼. 아빠가 미안해. 근데 내일이면 다 나을거래. 의사 선생님이 다 나을거래." 난 아이에게 말했다. "아빠 근데 왜 울어?"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다. "행복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긴 투병 생활의 종지부를 맺는 마지막 밤을 보냈다. 8년 전 가을, 가을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우리 병원으로 왔다. 갓난아이였는데, 안구종양으로 인해 뇌가 손상된 상태였다. 솔직히 1년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8년을 정직하게 컸다. 안구 종양으로 5살에 죽은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 너무 기특했다. 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퇴원할 것이라고 한 날밤, 아이의 뇌는 기능을 멈췄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발악을 했지만 결국 아이는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아이의 아버지도 너무나 힘든 삶을 포기했다. 그해 가을은 찾아오지 않았다.

운문
장원
(1학년)

오늘 하루에

20215 송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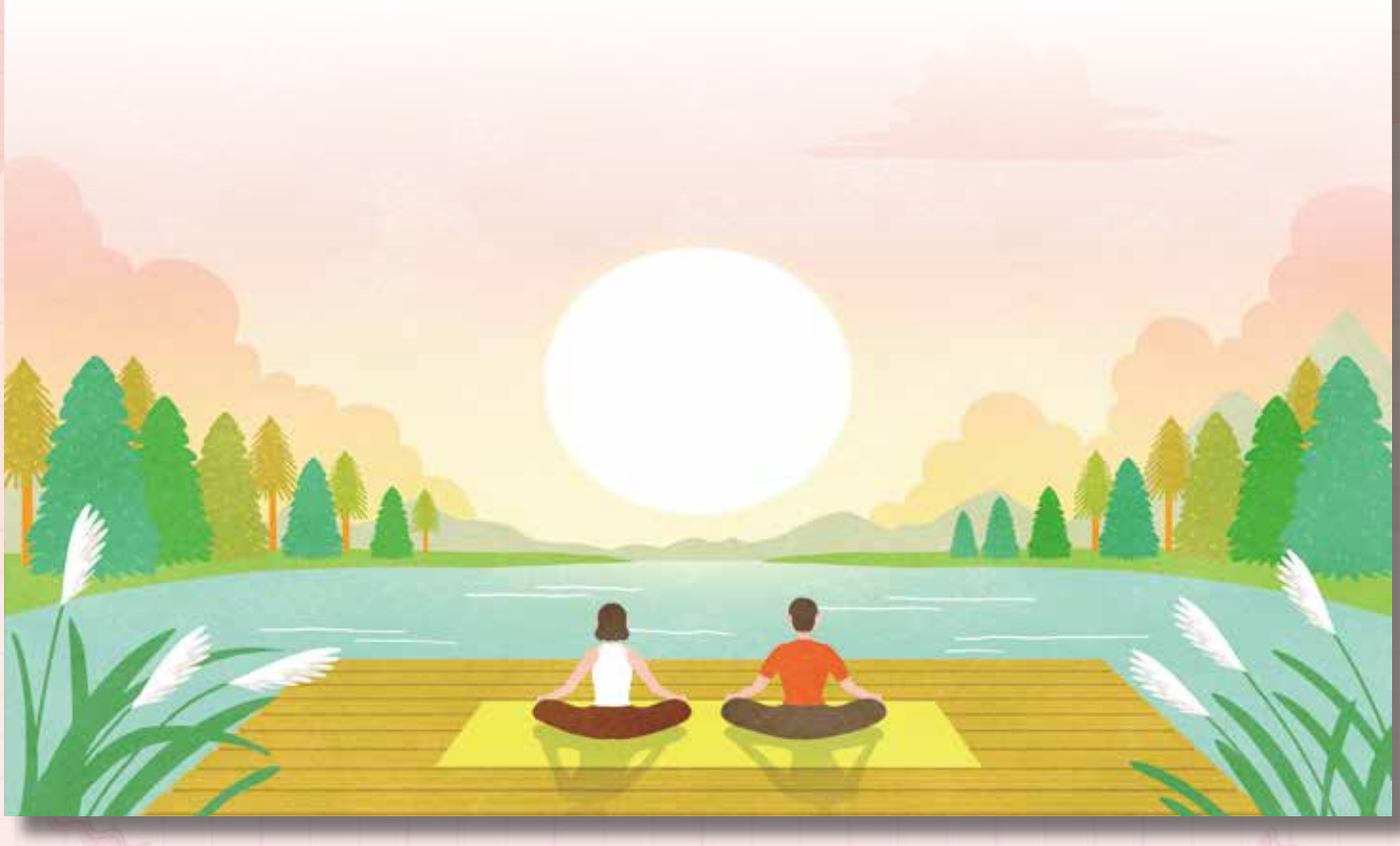
아침에는
창 사이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단잠의 개운함에
침대의 푹심함과 이불의 포근함에
시원한 아침공기에
한번의 시원한 기지개에
밤 사이 흘린 땀을 씻겨주는 적당한
온도의 물에
따뜻한 물로 씻고 욕실을 나올 때 맨몸으로 맞이하는 공기의 시원함에
거실에서 들리는 달그락거리는 밥 짓는 소리에
오늘도 아무일 없이 보는 가족의 얼굴에
갓 지은 밥의 달콤함에
그 밥 위에 얹은 반숙의 계란후라이와 잠깐 목이 맥힐 때 들어가는 김치의 조화에
어디선가 들리는 잔잔한 피아노 소리에
집을 나서는 나를 배웅해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에

점심에는
중천에 떠오른 햇빛의 강렬함에
햇살을 받아 빛나는 나무의 푸르름과 꽃들의 화사함에
간밤의 비로 짙어진 풀내음과 꽃내음에
파란 하늘의 하얀 한점의 구름에
건물 위에서 본 시내의 모습이 담은 아름다움에
한강과 주변 산들의 장엄함에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김치찌개와 시원한 콩나물 무침에
식사 후 마시는 차 한잔의 여유로움에

산문
장원
(2학년)

잠깐 짬을 내어하는 독서에
나른하게 밀려오는 졸음에
친구들과 나누는 가식없는 수다에
아직 남은 하루에

저녁에는
하늘을 물들이는 다홍빛 햇살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
켜지기 시작하는 가로등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는 뿌듯함에



자기주도
학습
우수 작품

자기주도학습 우수작품

21122 윤준서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나는 그 차이는 얼마나 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가 라고 생각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잘 보고 성적이 향상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학원 숙제를 겨우 해가며 학원에 가는 것조차 싫어한다. 그러나 자신이 공부할 것을 주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뚜렷하고 본질적인 목표를 세워 주도적으로 공부하였다. 주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공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목표를 세움으로서 공부에 대해 자발성을 가지고 한정된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두 번째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였다.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먼저 큰 단위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한 과목 당 교과서는 몇 회독을 하여야 할지, 어떤 문제집을 풀고 몇 번 복습을 할지, 학원은 어떻게 활용할지 에 대한 큰 범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고 스터디플레너를 작성하였다. 플레너를 일 단위, 시간 단위로 목표를 세분하고 이것들이 모여 전체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한 주에 한번 씩 각 과목 별로 해야 할 공부를 먼저 나열하여 적어 놓고, 그것을 7일로 나누어서 각 날짜 별로 할당하여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았다. 그리고 매일매일 해가면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음날의 계획을 조금씩 바꾸었다. 각 과목 별로 스터디플레너를 작성할 때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학원을 간다면 그 주 수요일에 월요일의 수업 때 했었던 숙제, 개념, 오답을 모두 복습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과탐 과목은 한번에 한 과목에 집중해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할 때 개념을 학습하고 그 주 할당된 모든 숙제를 끝내는 방법으로 계획하였다. 다른 과목들도 각 과목 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반영하여서 플레너를 계획하였다. 또한 목표를 세움으로서 동기를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에 계속 생각해 보았다.

계획된 학습량을 모두 공부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를 가져서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학원 수를 줄이고 자기주도학습시간을 확보하였다. 학원은 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이용하였다. 꼭 필요한 학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최소한의 학원만 등록해서 자습 시간을 확보하였다. 학원 강의를 통해 얻는 것 보다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느꼈다. 학원에서 강사가 주입해 주는 반면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공부하여 개념을 정리하고, 학습할 내용을 체화 할 수 있다. 1학년 때에는 거의 모든 과목의 학원을 등록해서 자기주도학습을 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2학년에 학원 수를 줄이고 자습 시간을 늘려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기주도
학습
우수 작품

자기주도학습 우수작품

20101 강민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후, 코로나 상황이 작년보다 나아지면서 학교에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1학기에는 등교주간에 일응관에서 자습했고, 2학기에는 교실과 인재관을 가며 자습했습니다. 자습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 번째 느낀 점은 '공부는 결국 손으로 하는 것이다'입니다. 제가 국어 공부를 할 때, 1학년까지는 그냥 학교필기를 다회독하면서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는 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학교 필기를 노트에 옮겨 적으며 공부했습니다. 단순히 옮겨 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 들어주신 예시나 농담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노트정리를 하고 나니 필기를 2~3회독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만의 필기노트를 만들어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결과, 1학년 때보다 국어에서 더 높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두 번째 느낀 점은 '나의 공부에 관한 모든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입니다. 1학기까지 저는 수학, 국어 이렇게 두 과목 학원을 다녔습니다. 국어 학원의 경우, 외부지문 대비를 위한 외부문제 풀이 부분에서 꽤 도움이 되었기에 2학기 때도 계속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 수업이 평일이여서 수업 집중도도 떨어질 뿐더러(실제로 학원 수업에서 많이 졸았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는 문제들까지도 학습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끊고 자습으로 대체하겠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성적을 2학기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세 번째 느낀 점은 '스스로 공부해서 이룬 업적이 미래의 공부를 위한 원동력이 된다'입니다.

저는 1년동안 학원 없이 자습으로 영어 내신 공부를 하면서 '영어 노트'를 작성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습한 모의고사/수능 지문에서 꼭 알아야 할 어휘/구문(문법)을 정리하고, 그 밑에는 한글로 지문의 논리적 구조와 전개 방식,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1년동안 작성한 영어 노트를 펴 봤을 때, 그 때 느껴진 뿌듯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물론 1학기 기말고사 에서 예전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는 등,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부 방법을 더 세분화하고 발전시키면서, 날로 새롭게 성장해가는 저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성장했던 경험이 내년에 수능을 볼 때까지, 더 나아가 대학 진학 이후까지 제가 하는 모든 공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느꼈던 성취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며 자기주도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내년에도 자기주도학습으로 끝까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결과, 좋은 성적, 좋은 대학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쌓은 경험이 그냥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과스터디
최우수
작품

교과스터디 최우수작품

21227 임영택

프로그램 참여 과정 구체적 서술 (ex. 멘토링 및 스터디가 이루어진 방식, 교재 등)

저희가 사용한 교재는 학교 프린트물과 마더텅을 사용하였습니다. 문법은 프린트에 써져있는 필기를 우선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마더텅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며 수업 시간에 배웠지만 햇갈렸거나 까먹은 개념들은 문제를 풀면서 이해하였습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문제 유형은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서로 공유하면서 배워나갔고 내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험은 어느 정도의 암기를 요구하는데 특정 단원에서는 이러한 암기법을 쓰면 좋은지를 서로 공유해가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다 끝나고 시간이 남게 되면 주로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풀어보고 스스로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후 성취한 결과 및 소감

저는 교과 스터디를 통해 언어와 매체에서 중요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체크는 하거나 필기하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배웠습니다. 제가 교과 스터디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1학년 때 문법에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조차 힘들었고 특히 암기가 힘들어서 고생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과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가지 암기법이나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교과 스터디에서 목표했던 등급까지 푸는 속도나 방식등에서 확연히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해는 못했지만 1학년 때 성적이나 문제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추후 학업 계획

2학기 때에는 프린트물에서 나온 개념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1학년 때와 동일하게 마더텅을 풀면서 까먹은 부분이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1학기 때와는 다르게 보인 고등학교 사이트에 등재되어있는 작년도 기출을 풀고 교과 스터디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논하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1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양에 비해 토의하거나 질문할 시간이 부족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념을 미리 빨리 짚고 문제들을 만힝 푸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경제
경시대회
결과 보고서
우수작품

'따릉이'의 경제적 의미와 사회경제적 가치

20121 송원태

1. 주제 선택 이유: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공유소비를 바탕으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경제' 형태의 경제 활동 수단이다.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정책 중 '따릉이' 사업에 가장 공감하며 매우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그런데, 한국경제, 매일경제와 같은 경제신문이 '따릉이' 사업의 적자 문제를 거론하며 공공 자전거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기사를 올린 것을 보고 과연 '따릉이' 사업의 적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싶어졌다.

2. 교과 수업 관련 내용 및 활동: 본 주제는 사회문화 수업의 사회연구 방법,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등을 공부하며 선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고서 작성 이후 수업시간에 발표하며 친구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따릉이'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3. 탐구 방법: 문헌연구법

서울시 보도자료, 신문기사, 블로그 기사, 논문, 유튜브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고 탐독하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4. 탐구 내용

가. '따릉이' 사업 개요: 교통,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동력·무탄소 녹색교통수단 확대, 공유와 나눔의 교통문화 확산, 대기 질 개선, 시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친환경 단거리 생활교통수단 공공자전거를 보급한다. 이를 위해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

나. 공유경제와 공공서비스: 공유경제는 물건과 자원을 공유하여 낭비를 줄이고 사회 공동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협력적 경제활동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인터넷망이 있기에 공유경제 시스템이 발전할 인프라가 충분하다. 공유경제 이용자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많지만, 점차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하고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교통·의료·통신사업과 같은 기본 서비스를 말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공공경제 차원의 공공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다. 교통기본권과 공공자전거: 교통권은 국민 누구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말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교통권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을 합리적 비용으로 이용하고, 소외계층과 교통낙후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2020년 통계를 보면, '따릉이'는 주말보다 평일에 더 많이 이용하고, 출퇴근 시간대 사용자가 54%로 집중되어 있다. 2020년 기준 '따릉이' 회원은 20,30대 청년층이 64.7%로 가장 높았으나 50,60대 이용 빈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시민의 교통기본권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라. 공공자전거와 환경 보호: 해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비용이 증가하고 있기에 환경 선진국들의 자전거 공용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공공자전거 사업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공공자전거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교통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저탄소·무탄소 이동 수단인 친환경 공공자전거의 대중화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난·재해 복구비, 탄소세, 국민 건강 유지비용 등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 공공자전거와 도시 이미지 향상: 서울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 결과, 서울이 2010년에 유네스코 지정 디자인 창의 도시로 선정되었다. 공공자전거 활성화는 친환경 도시 이미지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IT 기술과 빅데이터 지식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친화적 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자전거를 대량 보급하여 운영한다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행자들의 편의도 증진시키고,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공유도시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값싸고 편리한 교통시스템, 친환경 생태도시 이미지를 갖춘 서울의 클린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홍보하여 관광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 '따릉이' 사업 만족도: 2015년 '따릉이' 가입자 수

는 34,000명이고, 이용건수 11만 건이었다. 2020년에는 연간 회원 수 106만 명, 이용건수는 2,370만 건으로 각각 30배, 200배 증가하였다. 사업 시작 이후 누적 회원 수는 279만 명, 누적 이용건수는 5,960만 건으로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1인당 평균 6건 정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따릉이' 사업은 2017~2019년 3년 연속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 1위로 선정되었고, 2018년 서울시 공유 정책 사업 만족도 93.9%로 나타나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따릉이' 이용률이 74.4% 증가하며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보면 '따릉이'의 필요성과 만족도는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대면 교통수단 '따릉이'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사. '따릉이' 사업의 운영 적자: '따릉이'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따릉이' 사업은 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요금 수입이 2019년 90억 원에서 2020년 118억 원으로 28억 원(31%) 증가했지만, 실제 운영비가 180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37억 원(21%) 늘었기 때문에 결국 적자를 일으킨 것이다. 2015년에 시작된 '따릉이' 사업의 적자는 2016년 25억 원, 2017년 42억 원, 2018년 67억 원, 2019년 9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해마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서울시가 2017년 이후 자전거와 대여소 확대하고 관리하기 위해 매년 200~3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에 2,000대였던 '따릉이' 수는 2020년에 37,500대로 19배 늘었고, 2015년에 200곳이던 대여소는 2020년에 2,228곳으로 11배 늘었다.

아. '따릉이' 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따릉이' 사업은 단순하게 운영 적자 같은 수익 개념을 따지지 말고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해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장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공공자전거는 교통복지 수단의 하나이다. 수익과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면 적자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따릉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건강 증진, 교통 혼잡 감소, 제로탄소 의식 증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 비용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가치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따릉이' 이용건수가 늘어나면서 운영비가 증가했으나 가입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용 건수 대비 운영비용은 2018년 건당 1,191원에서 2020년 건당 917원으로 감소한 것을 보면, '따릉이' 이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효율성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따릉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2년 이후 '공유'를 통해 서울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공유경제 정책의 하나로 탄소 발생을 줄여서 대기 질을 개선하고, 저렴한 생활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친환경 이동권을 보장했다. 2019년까지 '따릉이'가 달린 누적 거리는 약 1억4천만 Km인데, 이 거리를 자동차로 달렸다면 약 19,6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따릉이' 이용만으로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줄인 것이다. 이용자 만족도, 이용요금, 서비스 신뢰도, 물가변동, 시장상황 등과 같은 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따릉이'의 경제성은 운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공공복지 및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따릉이'를 이용하는 서울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교통권, 이동권을 제공하는 것은 비용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지원금은 원래 많았다. 2019년 기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지원된 재정지원은 3천억이 넘고, 택시에는 1천억 이상이 지원되었다. 2020년에 지하철 운영 적자가 1조원 대이고, 버스는 3천억, 택시는 1천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따릉이'는 1백억 원으로 시민들이 가장 공감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용료, 재정 지원, 광고, 기술 수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수리비, 운영비 등과 같은 비용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면 '따릉이' 운영 적자는 감소할 것이다. 민간사업체 위탁 방식을 도입하여 관리감독하며 이용료와 운영 적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이 '따릉이'를 훼손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손실이 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들이 반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김민재, 박순열, 김지혜, 안새롬, 구도완(2018), 지속가능성 전환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 정책 평가 – 공유도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 연구 ECO 22(2). 한국환경사회학회.
김하경, 김승인(2018), 국내 공공자전거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따릉이와 누비자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8.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2014),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운영 계획, 서울시 정보공개문서.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2021), 2021 공공자전거 구축·운영 추진계획, 서울시 정보공개문서.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2021), 서울시, 작년 '따릉이' 이용 2,300만 건 돌파...코로나시대 교통수단 각광, 서울시 보도자료.
모창환(2013), 선진국의 교통복지정책 사례분석, 월간교통 2013.4. 한국교통연구원.
모창환(2017), 국민의 교통기본권 강화, 월간교통. 한국교통연구원.
문은진(2014), 대중교통 대체수단 도입으로 친환경 도시 이미지 구축에 관한 연구–공공자전거와 카쉐어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우샤오롱, 김병재(2019), 공유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인과 소비자 요인에 관한 연구–중국 공유자전거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17권 제1호.
신희철, 김동준, 정성엽(2012), 공공자전거 효과 분석 및 발전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서울시 공공자전거 홈페이지 https:/www.bikeseoul.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4291609i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3/294109/
https://mnews.sarangbang.com/detail/article/199897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0871&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_%EC%84%9C%EB%B9%84%EC%8A%A4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A%B3%B5%EA%B2%BD%EC%A0%9C%ED%95%99
https://blog.naver.com/speedtax/222336439855
https://blog.naver.com/enbnews/222214196497
https://brunch.co.kr/@brunchgpjz/23
https://together.kakao.com/magazines/1333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

대입 합격 수기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합격 수기

31208 김한서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에 수시전형인 학업우수형으로 합격한 김한서입니다. 3년간 수시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해온 입장에서 후배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글을 구성해보려고 했습니다. 비교과 활동과 자소서·면접 관련 팁,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하는데 작은 참고사항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무렵이 되면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신이 3년간 진행한 활동 중에서 자신의 전공 적합성이나 인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항목별로 2~3개 골라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매우 난감하고 소재가 빈약해지게 되는데, 자신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탐구 활동이 무엇일지 미리 설계하고 구상해본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완성도 높은 활동을 진행해 놓은 경우라도 어떤 탐구 활동으로 남은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면 나의 생활기록부가 더 돋보이게 될지 수시로 고민해보는 것도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준비하는 시즌에 더 편해지는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방법 중 한 가지로는 1, 2학년 때 책 1권을 골라 그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추가로 조사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진로 활동 칸 작성에 활용했습니다. 이 활동에서 반도체 소자와 공정, 설비 같은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조사할 수 있어서 해당 분야에 관한 관심과 높은 이해도를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며 탐구 활동의 범위를 AI와 빅데이터 분야로 확장했고 AI 반도체와 같은 시스템반도체를 연구하는 데에 관심이 생겼다는 맥락을 설정하면서 탐구 활동을 진행했기에 자소서를 작성하기에 한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미리미리 해본다면 더 완성도 높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시문 기반 면접인 고려대학교의 면접은 상당히 정형화된 면접이기에 준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크게 감점될 일이 없는 면접방식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출문제를 면접 일주일 전부터 모두 하나하나 답변해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효과적이었던 공부 방법이 여럿 있었는데요. 우선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개념과 자신이 떠올린 과학적 개념을 연관 짓는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문항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지원한 학과의 전공과 관련된 물리학II 과목의 회로 부분을 제시문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시킬지 집중적으로 생각했던 점이 실제로 면접 당일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관련 분야의 동향을 보여주는 기사 내용에 평소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있었던 점도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고 녹음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방법은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방법입니다. 12분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답변 준비를 끝내야 하는데, 처음 시간을 재고 연습할 때에는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데에 6분 정도를 써버려서 남은 문제를 풀 시간조차 없게 된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연습을 반복하면서 메모지에 어떤 식으로 간결하게 답변을 정리할지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 녹음해보면 자신이 반복하는 말버릇이나 버벅거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계속 들어보고 고치는 과정이 점점 면접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간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슬럼프를 여러 번 겪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는 2학년 때는 내신시험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3학년 때는 6월, 9월 틈틈이 치러지는 모의고사도 있어서 심리적으로 항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보통 과거에 나태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학습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책과 후회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저는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심정이니까요. 하나의 사례로 저는 1학년 때 내신을 3점대 등급으로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면 이 점수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나 정시로 입시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떻

게 내신에서 한 과목이라도 더 잘 볼 수 있을지를 온종일 공부하고 고민하며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께 이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내신을 포기하지 않고 치르는 연습이 가져오는 여러 장점 때문입니다. 내신 기간에는 수능을 얼마 앞두지 않은 고3 수험생처럼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집중력의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내신을 잘 보겠다는 목표가 하나 더 있으면 지루한 수험생활에 하나의 긴장을 주는 요인이 되어 더 폭발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수능으로 보는 과목만큼은 잘 볼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공부한 결과를 돌이켜봐도 3학년 때 장기적인 리듬을 가지고 모두가 다하는 수능 공부를 따라서 할 때보다, 2학년 때 과학 내신을 공부하면서 한 단원만 집중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다 경험해 봤을 때와 3학년 수학 내신을 준비하면서 시험 범위였던 미적분 수능특강과 기출문제집을 거의 통째로 씹어먹듯 공부했던 때가 오히려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면서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았나?',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면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료한 수험생활 하루하루를 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두 목표하는 대학으로 입시에 성공하기를 응원합니다!

대입 합격 수기

연세대 사학과 합격 수기

30319 이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연세대 사학과에 진학하게 된 이주영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수기를 부탁하셨을 때 무엇을 써야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보내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기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뻔해 보이고, 많은 선배님들도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저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내내 수학이 5등급이 나왔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도 풀고 오답까지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때 아무리 공부를 해도 5등급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매우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수학1에서 갑자기 전교 5등이라는, 평생 동안 받아볼 수 없을 것만 같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때 운이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2학년 동안 못해도 2,3등급을 받으며 5등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5등급에서 전교 5등으로 오른 사례를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떠올리며 계속 노력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수학 한 과목뿐만 아니라 내신 전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학년 전체 내신이 약 3.4등급으로 연세대에 가기 힘든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2.5등급이 나오고 3학년 1학기에 1.7등급이 나오는 상승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 수시 서류평가 내용 중 '발전 가능성' 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세대에서는 이 '발전 가능성'을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이라고 정의해놨습

니다. 제가 연세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위와 같은 성적 상승 덕분에 '발전 가능성' 항목에서 낮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결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러한 성적 상승은 없었을 것이고 서류평가에서부터 탈락했을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도 지난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며 계속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페이스 조절하기

이것도 저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 1월부터 면접이 다 끝나는 11월 말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플래너를 썼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플래너를 쓰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받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는 것은 플래너를 썼던 것이 체력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플래너를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플래너에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적당한 계획을 짜놓고 그것이 일찍 끝나면 그만큼 더 많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플래너를 활용하니 동기부여가 되고 공부를 할 때 더 열심히 임했습니다. 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오히려 다음 날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다른 방법으로도 본인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다음날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 집중해야 할 때 확실히 집중하고 나머지 시간에 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지나치게 무리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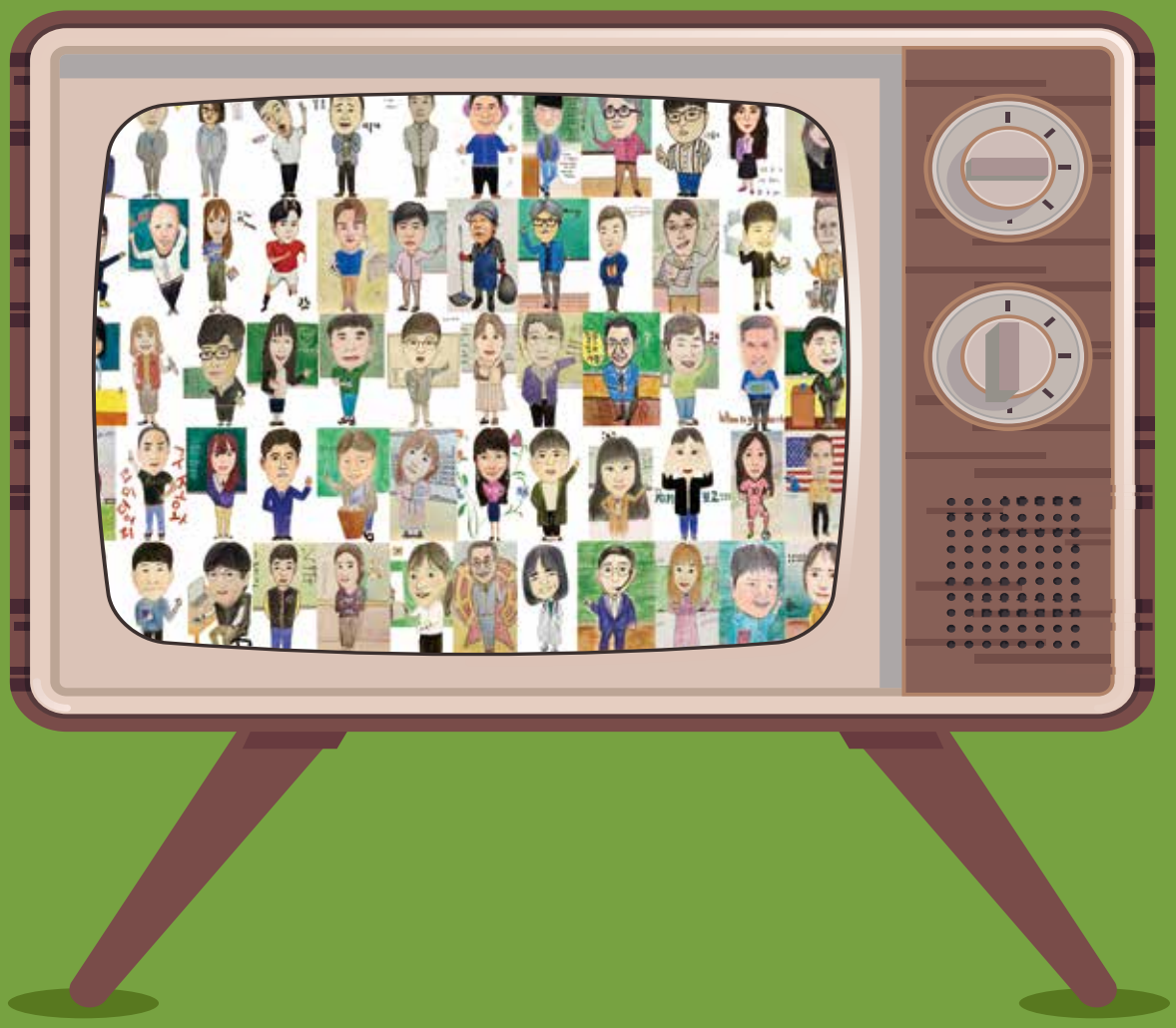
솔직히 위에 쓴 내용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수기에 쓴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2가지 내용이니 위 내용 중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힘내
수능타파
필승
수능 떡

Boin High

이보게, 로비노, 인생에 해결책이란 없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 뿐.
그 힘을 만들어내면 해결책은 뒤따라온다네.

생텍쥐베리, 「야간비행」 중



School

4

2021년 기획 :

이것이 궁금해요.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오징어 게임' 상금 456억, 현실이라면?

20127 이우진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인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역대 가장 많은 시청 가구 수를 기록한 콘텐츠로 기록되며 국내외로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중이다. 미국 폭스 비즈니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한국 원화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되는 통화가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원화 환율 검색뿐 아니라 원화를 다른 통화로 환산하는 법도 많이 검색되었다고 한다. 작중 등장하는 금전 단위가 자막과 더빙 모두 원(Won) 단위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극 중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이자 주인공인 성기훈(이정재 분)은 456명의 참가자 중 최종으로 살아남아 456억의 상금을 획득하게 된다. 드라마 상에서 성기훈은 상금 456억을 오롯이 획득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보훈급여금, 주택임대소득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어 성기훈처럼 456억을 온전히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현실이라면 세금을 내기도 전에 456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개인의 통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기훈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 유력하고, 오징어 게임을 통해 얻은 상금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 과정을 증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불법적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판단하여 상금은 전부 국가에 몰수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 자체의 불법성과 특수성을 잠시 제쳐 두고 오징어 게임을 그저 일종의 대회로 보았을 때 기훈이 내야할 세금이 얼마나 될지, 현행 조세법상 과세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우승 상금에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은 총 2가지다. 첫 번째는 오징어 게임을 대회로 간주하고 상금에 기타 소득세를 매기는 방법, 두 번째는 주최측에서 성기훈에게 상금을 단순 증여했다고 보고 증여세를 무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456억을 상금과 부상으로 취급하는 방안이다. 현실 속에서, 오징어 게임처럼 게임에서 우승을 한 참가자에게 상금을 주는 유명한 경우로는 현재 방영 중인 '유 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이 있다. 현재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유명한 유퀴즈는 시민들에게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히면 현찰 100만원을 지급한다. 일단은 상금의 액수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많은 '오징어 게임'의 456억보다는 '유퀴즈'의 100만원이 계산하고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유퀴즈의 상금액인 100만원으로 먼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일단, 게임 등의 경품과 상금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국세인 기타 소득세는 20%가 원천 징수된다. 다만 국세청에 따르면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임 예로, 피자를 판매할 때 피자를 만들기 위한 재룟값과 가게를 운영할 때의 인건비 등이 필요 경비로 계산됨.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세금을 적게 부과받게 됨) 때문에 유퀴즈 프로그램을 모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보면, 이 경우 유퀴즈 우승자는 총 100만원의 상금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80만원을 제외하면 20만 원이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으로 잡힌다. 소득으로 잡힌 20만원에서 원천징수액으로 부과되는 4만원(20만원의 20%)과 원천징수액의 10%인 지방세-4,000원-을 더한 금액인 4만4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95만6000원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오징어 게임도 모두가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로 보고 위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주최측은 상금에서 20억640만원만 뗀 뒤 남은 435억9360만원을 성기훈에게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성기훈이

내야 할 세금은 더 있다. 대회 상금으로 받은 기타 소득은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종합 소득세율은 6%~45%.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고세율인 45%가 적용된다. 때문에 '유퀴즈'와는 달리 총 상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오징어 게임'은 내야할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 이 세금 또한 납부할 경우 총 44억4246만원이 성기훈이 내야 할 기타 소득세·지방세 총액이다.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 91억2000만원에 종합 소득세인 45%를 곱한 뒤 누진 공제액 6,540만 원을 뺀 금액 (여기서 누진 공제액이란 누진세율 구조에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때 그 아래 적용세율(%)의 금액에 대해서 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누진 공제액이 클수록 내야할 세금은 적어짐) 40억3860만원이 기타 소득세, 기타 소득세의 10%인 4억386만원이 지방세다. 앞서 주최측이 20억640만원을 원천 징수했기 때문에 성기훈은 남은 24억3606만원만 종합소득신고의 달인 이듬해 5월,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411억5754만원이 성기훈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금액이 된다. 40억 넘게 세금을 납부했지만 더 최악의 상황은 오징어 게임의, 주최측에게서 명함을 받은 특정한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었던 게임의 특성 때문에 정부가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에는 456억 전액이 소득으로 잡힌다. 이때 위의 계산의 필요 경비가 인정된 91억2000만원 대신 새로운 소득액인 456억을 대입하면 성기훈이 내야 할 소득세는 224억6만원이 된다. 돌아오는 상금은 231억이다. 정리하자면 기관의 판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최소 44억원대, 최대 224억 원대에 달한다. 추가로, 얻게 되는 금액으로 치환하면 최대 441억5754만 원을, 최소 231억9994만 원을 받는다.

세금 만으로 상금의 절반가량을 내는 것은 너무 잔혹해 상금을 받을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가? 456억원을 받을 또 다른 방법인 '증여'가 있다. 게임의 상금을 주최 측이 성기훈에게 한 증여금으로 간주하면 계산만큼은 456억을 대회 상금으로 간주할 때 보다 훨씬 더 간단해진다. 증여세는 그 금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한 뒤 4억6000만 원을 공제해ㅈ준다. 따라서 성 씨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223억4000만 원이다. 단, 증여세는 의무 신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3%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 때 신고하면 성기훈은 6억702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기훈이 까먹지 않고 신고만 잘한다면 216억6980만 원만 납부해 최종적으로 239억3020만 원을 챙겨갈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경우처럼 상금의 총액은 456억으로 같으나 그저 받는 방법을 바꾸었을 뿐인데 방법과 상황에 따라 성기훈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의 차이는 엄청나다. 극 중 선물이라는 용어를 모를 정도로 경제적 지식이 없는 성기훈이 세금에 대해 잘 알 확률은 희박하므로 주인공은 얼마나 실력 있는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최대 202억2734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다. 탈세를 해 자신의 미래와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트코인, 제대로 알고 하자

20414 안성진

비트코인 열풍이 오랜시간 이어지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의 탄생을 시작으로, 2017년 초에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꾸준히 높은 관심을 받고있다. 주식과는 달리 단기간에 매우 높은 가격 변동률을 보이는 비트코인은 벼락부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일명 '코인판'에 발을 들이도록 하였고, 심지어 주변에 비트코인을 한다는 10대들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무엇이며, 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될까?

비트코인은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의 합성어로,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가상화폐이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거의 없어 은행이나 다른 대행업체에 비해 저렴하고 계좌도 제약 없이 생성할 수 있다. 다만 2100만 개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다.

비트코인에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통화 거래 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장부 기록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적용되어있다. 비트코인이 거래가 될 때 그 정보를 별도의 블록으로 만들고, 이 블록을 각 거래자가 가지고 있는 장부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기록된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매우 어려워 강력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에는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방법과,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이 있다. 어려운 수학 연산을 풀게 되면 블록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블록체인을 통해 새로운 거래기록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는 것을 채굴이라고 한다.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채굴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CPU정도만 있으면 쉽게 채굴이 가능했는데, 점차 투자자가 늘고 채굴자들이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졌다. 일종의 암호 풀기가 일반 PC 1대로 5년 이상이 걸리는 수준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와 전용 채굴기가 등장하였다.

사실 비트코인은 수많은 가상화폐 중 한 종류이다. 가장 먼저 나왔고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즉 미국 달러와 같은 역할을 가상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가상화폐를 대표해서 비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코인의 종류는 약 1만개 정도로, 상장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 각각 발행 주체가 다르며 발행량이 비트코인과 달리 무제한인 코인도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도지코인, 파이코인, 이더리움 등 한번쯤 들어본 코인들도 모두 비트코인과 비슷한 원리로 생성, 거래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다. 채굴량이 많지만 관심도가 높지 않아 코인 구입량이 적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그 반대라면 가격이 오른다. 코인의 가격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도지코인을 예로 들어보자. 도지코인은 2013년에 처음 나와 몇년간 1~4원의 가격을 유지하는 별 가치없는 코인이었다. 그런데 얼마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 도지코인회사의 전 CEO이자 현재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한차례 언급하자, 코인의 가격이 2원에서 10원으로 급등을 하였다.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코인이 단숨에 시가총액 10위권을 기록하게 된다.

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인물이 된 일론머스크는 이후 트위터를 이용하여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차 결제가 가능할것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화성 가는 비용을 도지코인으로 받겠다, 비트코인은 환경문제를 일으킨다 등의 트윗을 남기며 도지, 비트코인의 급등과 급락을 초래했다. 즉 그의 트윗 하나가 가상화폐 투자자들, 일명 개미들의 희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트윗과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고있다. 일단 코인들을 사놓고, 트윗 하나로 코인의 가격을 올린 후 팔게되면 무조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지코인으로 돈을 잃은 일부 투자자들은 일론머스크를 '사기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코인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받던, 투자는 결국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트코인과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격 변동 폭에 대한 규제의 유무에 있다. 주식은 하루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퍼센트가 30%로 한정되어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규제가 없어서 가격 변동의 한계가 없다. 그렇기에 하루만에 2000%의 상승률을 보였던 코인도 있었고, 반대로 투자액을 모두 잃을 정도의 하락률을 보인 코인도 있었다. 비트코인 소액투자로 단숨에 떼돈을 벌어 인생역전을 했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주위에서 이러한 투자욕을 자극하는 얘기들에 매혹된 사람들이 간혹 비트코인에 지나친 금액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큰 돈을 벌게 될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국 손해를 보며 투자실패를 하기 때문이다. 초기에 돈을 좀 벌었다 해도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더 높은 수익을 갈망하다가 하락세를 마주치면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결국 투자 실패를 하게되는 한편, 약간의 손해를 본 경우에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하다가 돈을 모두 잃고마는 경우가 다반사다. 비트코인 주제를 다루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극단적인 가격변동에 이성을 잃어 컴퓨터나 책상, 창문을 부순다거나 핸드폰을 집어던졌다는 웃픈 인증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표본이 된다. 이를 두고 비트코인 거래를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보기도 한다.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변동은 소수의 재력가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미들은 가격변동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단순히 오를것이라고 믿고 무작정 돈을 넣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부분 역시 주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식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개인이 얻을 수 있고 전망, 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해보고 싶다면 과도한 재산 증식이 목표가 아닌, 재미의 수단으로 보는게 맞으며, 잃더라도 일상에 지장이 없을 여윳돈으로 하는게 올바르다.

통계의 오류

10111 김현중

노스케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몇 년간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을 학과 별로 조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학과는 지리학과였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지리학과 졸업생들 중에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있어서 지리학과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군사들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던 장군이 군사들의 평균 키는 180cm고 강의 평균 높이는 150m라는 보고를 들은 후 군사들의 평균키가 강의 평균 높이보다 높기 때문에 무사히 건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강을 건너기를 명령했지만 강의 최대 수심은 2m였고 군사 중 2m를 넘는 병사는 30명이 채 안됐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병사가 속출했고 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은 뒤에서야 장군이 회군을 명령해서 많은 군사를 잃었다는 일화도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통계의 함정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통계의 함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심슨의 역설은 그 중 하나이다. 심슨의 역설이란 각 부분에 대한 평균이 크다고 해서 전체에 대한 평균까지 크지는 않다는 내용의 현상이다. 대표적인 심슨의 역설의 예로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었었던 데릭 지터와 데이비드 저스티스의 1995년과 1996년의 타율(안타/타수)이 있다. 1995년과 1996년의 타율을 각각 비교해보면 데이비드 저스티스의 타율이 데릭 지터의 타율 보다 높다. 하지만 두 해의 타율을 합쳤을 때는 데릭 지터의 타율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현상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한다.

심슨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요한 변수가 무시되었거나 샘플의 크기나 비율이 다른데도 가중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의 예시에서 심슨의 역설이 발생한 이유도 샘플의 크기나 비율이 다른데 가중치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두 타자 모두 타율이 낮았고 1996년에는 두 타자 모두 타율(안타/타수)이 증가 했다. 데릭 지터는 1995년에 48타수에 나오고 1996년에 582타수에 나오면서 두 해의 타율을 합칠 때 타율이 증가한 1996년이 반영되는 비율이 매우 큰 반면에 데이비드 저스티스는 1995년에 411타수 1996년에 140타수로 두 해의 타율을 합칠 때 타율이 낮았던 1995년이 더 많이 반영된다. 결국 합치면 데릭지터의 타율은 12+183/48+582=195/630=0.310이 되고 데이비드 저스티스의 타율은 104+45/411+140=149/551=0.270이 돼서 두 해의 타율을 따로 봤을 때는 데이비드 저스티스의 타율이 높지만 합치게 되면 데릭 지터의 타율이 높아지게 된다.

통계의 함정의 다른 종류에는 잘못된 표본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잘못된 표본에는 대표적으로 양이 너무 적은 표본이나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표본이 있다. 너무 적은 표본의 예를 들면 어떤 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약을 만들고 10명에게 실험한 후 9명에게 효과가 있었을 때 이 약을 만든 회사는 이 약을 먹으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이 병이 낫게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지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 회사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다. 표본을 선택하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은 표본을 무작위로 뽑지 않고 특정한 집단을 표본으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를 할 때 상대적으로 학생이 많은 학교 앞에서 하거나 성인들이 많은 직장 앞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 표본을 적절하지 않게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통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표본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자동차의 미래

10231 허성욱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왜 그들은 모두 전기자동차로 넘어가려고 할까?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는 1km를 달리는 동안 적게는 100g에서 많게는 200g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한다. 온실가스 저감에서 '글로벌 리딩' 역할을 하는 유럽에서는 입법을 통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려는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기차란 동력에너지원을 전기로 하여 구동을 하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한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길어 상용화되지 못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술의 발달로 전기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의 자동차와 달리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4행정 작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의 소음이 없고, 외부로 배출되는 배기가스도 너어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은 타이어와 지면에서 발생하는 노면소음이 전부이다. 너무나도 조용한 탓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는 평가들도 간혹 있지만 자동차 오너의 입장에서는 운전 피로도를 덜 수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디젤 차량, 가솔린 차량보다 탈수록 가성비가 좋다는 큰 장점이 있다. 간단히 유류비만 놓고 따져봤을 때, 유가 변동으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약 2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기에 충전비용이 주유비를 추월하는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연간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 역시 배기량에 따라 차등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0이므로 최소 비용인 13만원만 내면 되지만, 동일 제원의 가솔린차량은 두 배 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하는 부품이 적어 정비도 비교적 간단하고, 엔진오일과 같은 소모품 교체도 필요없어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공존하듯 전기차 또한 단점이 존재한다. 전기차는 처음 구매할 때 차량 가격이 가솔린차보다 두 배 정도 비싸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에 비해 국내에 설치된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가 미비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전국에 환경부와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주유소의 수에는 미치지 못하기에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 전기차를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이 바로 충전 시간이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는 다르게 최소 20분이상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충전을 해 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완충을 하더라도 주행 가능 거리가 최대 400km밖에 되지 않아 장거리 주행 시 자주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렇듯 환경을 생각하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전기차이지만 아직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나뉘는 차량이다. 한 번 구매하면 오래 타는 자동차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시간, 인생과 흐름

10810 나종하

인생, 지금까지 모든 시대 사람들이 생각해 보고 탐구해 봤을 만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예를 들어 보자. 만약 당신 반에서 모둠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당신 모둠 프로그램의 기한이 내일까지라고 한다면 당신은 다른 모둠 프로그램엔 신경 쓸 겨를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인생에 관심과 집착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인간 모두가 속해있는 범위이며 기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생이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들 모두가 속해있는 이유는 바로 '시간'과 관련이 있다. 이 기사에서는 시간과 인생, 가깝지만 먼 두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늙다가 다시 젊어질 수 없고 똑같은 하루를 다시 한 번 살 수도 없다. 왜일까? 우리가 오늘을, 평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인생을 좀 더 가볍고 맘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구성하는 원자들이 많으면 경우의 수가 큰 상태가 되어서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해서 '열역학 제 2법칙'에 의해 입자가 많으면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다른 방법을 찾아왔다. 바로 시간의 흐름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다. 중력, 빛의 속도 등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늦출 수 있다. 특정 공간만 시간의 흐름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미래로 시간 이동도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한심하여 미래의 삶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시간 여행을 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자. 시간은 상대적이기에 시간이 느려지면 다른 곳의 시간은 빨라진다. 즉, 느려지는 쪽은 뒤처지게 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먼 곳으로 도망가고 다른 세상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나 과거 자신이 뒤처지게 된 모습을 후회하여 과거를 바꾸고 싶어 해도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유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에 있다. 선택의 고뇌와 후회로 많은 사람들을 고난 속에 빠지게 하는 이 변수들을 사람들은 저주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인생이 하나의 경우로만 진행된다면 선택의 자유도 없이 일직선상의 삶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재미도 없을 것이고, 잘못하면 인생이 지루하고 덧없이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마다 다양한 길 앞에 서 있고 매 순간 길을 선택해 걸어가게 된다. 때로는 그 길이 나를 슬프게 만들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더라도 그 모두가 나를 만들어가게 해주는 여행이기 때문에, 나로서 주체성를 가지게 하는 이 경우의 수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시간과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가끔은 시간을 낭비하는 자신의 선택도 하나의 쉼이 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막심할 수 있지만, 그 미련을 이겨낼 힘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우리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도 상대적이다. 그 인생과 그 안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이제 각자에게 달렸다.

스포츠 속 빅데이터

11019 이승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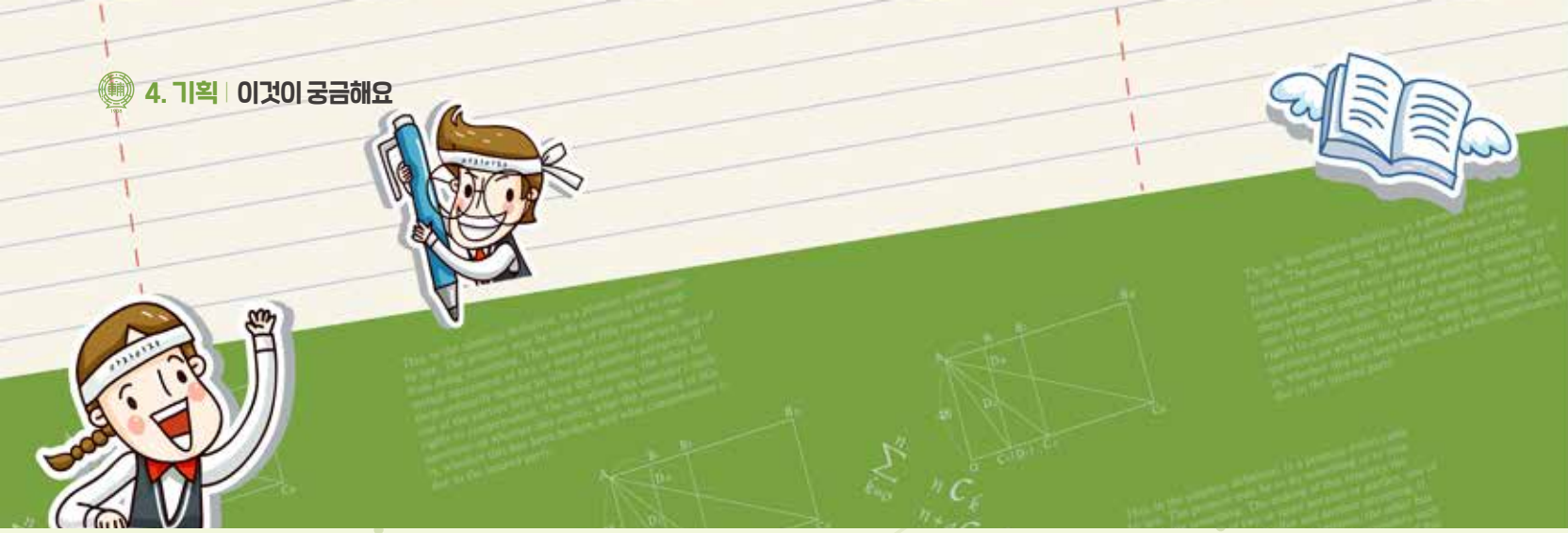
'스포츠'하면 직감과 경험에 의존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 것이다. 과거에만 해도 그랬다. 선수를 뽑는 스카우터들은 자신의 감과 느낌에 의존하여 좋은 선수들을 팀에 데려오고는 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였고,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면서 미래를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젠 스포츠도 빅데이터를 통해 발전하게 되었다.

먼저,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한다. 그러면, 빅데이터는 과거의 데이터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빅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인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시도는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의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와 비교해 데이터의 양은 물론 질과 다양성 측면에서 과거와 다르다.

그럼, 빅데이터가 실제로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자. 첫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빅데이터가 쓰이는 부분이다. 선수가 개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독일의 프로축구 구단 TSG 1899 호펜하임이 이것을 증명해냈다. 2000년에는 4부 리그 소속이었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었다. 이 구단은 선수들에게 센서를 부착하여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운동 능력과 같은 수치를 코치가 볼 수 있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별 맞춤형 훈련을 진행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호펜하임 뿐만이 아니었다.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도 선수들에게 센서를 달아 여러 데이터를 모았고,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상대 국가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여 준결승전에서 브라질을 7대1로 격파하였다. 이 경기가 끝난 뒤 독일 선수들은 인터뷰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 같았다며 브라질 선수들이 예상한대로 움직였다고 했다. 빅데이터를 통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다.

둘째, 생활체육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스마트폰 앱이나 웨어러블 장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운동량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대표적 사업인 국민체력 100은 개인의 체력을 측정한 후, 도출된 여러 데이터를 통해 개인별 분석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 건강해지고, 체력도 좋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관중들에게도 빅데이터가 도움을 주고 있다. 스포츠 중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경기의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게 되었다. 프로야구 구단 KT 위즈는 수원 KT 위즈 파크를 스마트 야구장으로 조성하여 관중들에게 여러 볼거리를 전달한다. 투구 추적용 카메라로 공의 궤적이나 구속을 측정해 보여주고, 여러 카메라로 다양한 지점에서의 영상을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기술들 덕분에 관중들은 흥미를 느끼며 야구를 재밌게 볼 수 있다.



빅데이터는 현재 많은 스포츠에서 사용된다. 이 덕분에 운동을 하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 모두 즐거워지고 있고,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스포츠의 모든 것이 빅데이터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선수들의 열정, 코치의 느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스포츠이다. 그래서 어느 한 쪽에 치우쳐진 것이 아닌,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조화한다면 스포츠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맞춤형 화장품' 시대 본격화

11204 김호준

작년 3월부터 국내에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맞춤형화장품 시대'가 포문을 열었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에 맞춰 매장에서 즉석으로 재료를 혼합하거나 소분한 화장품을 뜻한다. 2017년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위해 여러 절차를 마련해 왔고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 국가'로 도약해 한해 9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왜 맞춤형 화장품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화장품 강국으로 샤넬,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명품이 샘플링으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을 들여다보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전국 가맹점의 폐점률이 개점률보다 4배나 높다. 특히 화장품 로드샵의 쇠락이 눈에 띄게 가파르다. 올리브영을 제외한 여러 로드샵에서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있다. 또한 K-POP, 한국 드라마 등의 인기로 해외 화장품 수출에 큰 힘을 실어주었던 K-뷰티도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맞춤형화장품'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내 맞춤형 화장품 시장은 50억원도 채 되지 않은 매우 작은 시장이지만 고객층의 증가가 기대되는 블루 오션이다. 맞춤형화장품은 색조(color makeup)보다 기초(foundation)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전 세계 뷰티 트렌드에 걸맞다. 현재 화장품 트렌드는 색조에서 점차 기초로 돌아서고 있고. 기초 제품을 주력으로 삼은 기업들이 두드러지게 성장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색조의 경우 개개인에 맞는 색보다 뷰티 업계가 출시하는 트렌디한 색이 더욱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초 화장품은 개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같은 제품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맞춤형화장품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맞춤형화장품은 향수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 앞으로 개인 위주로 세분화된 자기만의 시장이 커질 것이므로 맞춤형화장품이 약진할 수 있는 분야로 꼽는다. 향수는 나만의 향기를 갖고 싶은 소비자들의 욕구로 인해 '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강하다. 이에 기존 향수들을 배합한 '향수 레이어링', 공방에서 진행되는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이 인기를 얻었다. 나아가 현재 맞춤형 향수를 만들고 있는 크리스챤 디올, 니치 향수의 국내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은 미래를 짐작케 한다.

1초를 재는 방법

21127 정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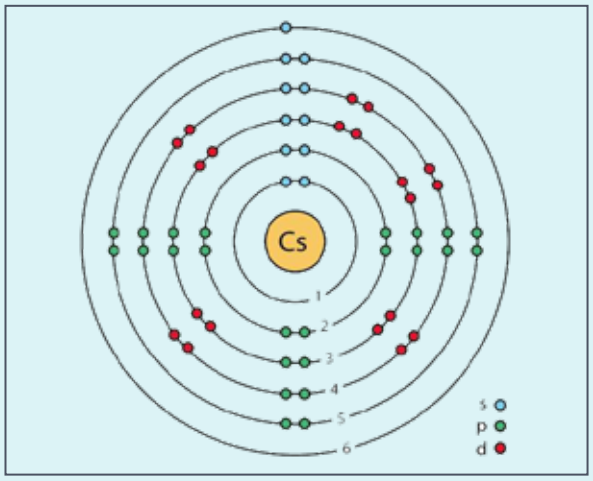
한때 친구와 '1초 맞추기 게임'을 한 적이 있었다. 스톱워치를 들고 1초가 지났다 생각이 들면 정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본인은 1초 19가 걸렸고 친구는 1초 38이 걸려 결과는 필자의 승리였다. 그러다보니 드는 생각이 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1초가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같은 1초를 사용하는 걸까? 우리 지구인들의 1초를 재는 방법을 알아보자.

옛날 옛적에는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반복되는 일, 즉 일출과 일몰로 시간을 정했다. 해가 뜨고 지기까지의 시간을 24시간으로 정하고, 나누기 24 나누기 60 나누기 60을 한 것이 바로 1초의 정의였다. 그러다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일출과 일몰을 결정하는 자전도 매번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보다 정밀한 기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1초의 정의는, **세슘 133 원자의 두 바닥상태 사이의 전이에 해당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단위로 파헤쳐보자

(1) 세슘 133 원자의 두 바닥상태

양성자 55개에 중성자 78개를 지닌 원자를 '세슘 133'이라고 한다. 뒤에 붙은 133은 동위 원소의 표현이며, 다른 세슘 원자들과 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된다. 세슘 원자는 40개 정도의 동위원소가 있다. 그 중 유일하게 안정한 원자이기 때문에 1초의 기준으로 쓰이는 데 용이하다. 바닥상태는 전자들이 가장 에너지가 낮게 배치된 상태를 말한다. 본문의 그림이 세슘 원자의 바닥상태를 나타낸 오비탈[1] 모형이다. 각 전자껍질[2]에 쓰인 1, 2, 3의 숫자와 s, p, d의 알파벳은 양자수를 의미한다. 동그라미 하나를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방부터 차례로 들어가므로, 1s,, 2s, 2p, 3s, 3p... 오비탈의 정해진 순서대로 채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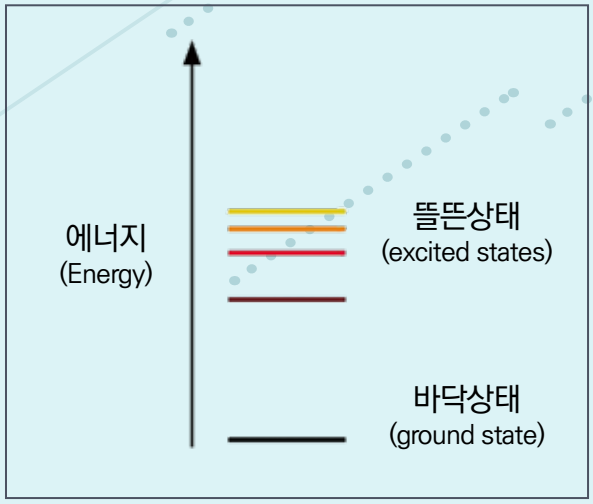


(2) 전이에 해당하는 복사선

원자들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그림을 보면, 에너지 준위를 표현하는 직선이 띄엄띄엄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띄엄띄엄 있는 것을 어려운 말로 불연속적이라 부른다. 원자들은 바닥상태와 들뜬상태를 오가며 계속 진동을 하는데, 이때 두 에너지 준위의 차만큼 전자

1) 원자핵 주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 현대의 원자 모형이다. '위치'가 아닌 '확률'을 사용한 이유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전자가 그 자리에 있을 확률만 알 수 있다.

2) 특정한 에너지를 가진 원 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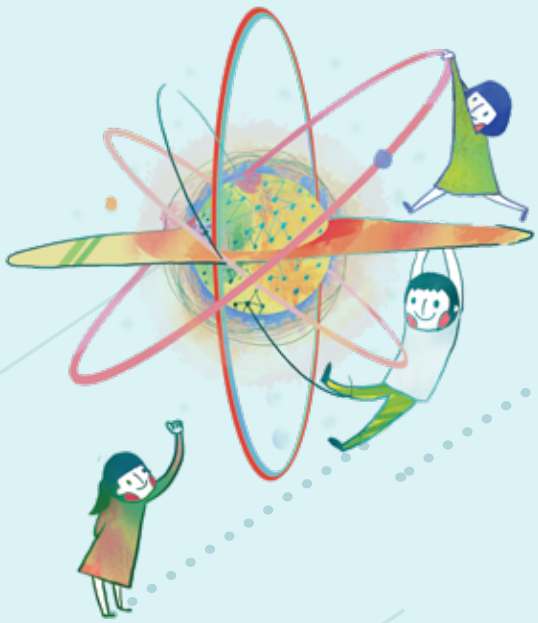
기파를 내보낸다. 이때의 전자기파가 '전이에 해당하는 복사선'이다.

(3)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

'$\Delta E = hf = h/T$.' 주기와 진동수를 구하는 공식이다. ΔE는 앞서 말한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며 h는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 T는 주기이다. 주기와 진동수는 정의상 역수 관계에 있으므로, 9 192 631 770 주기는 세슘 133 원자가 9 192 631 770번 진동한 횟수의 역수를 의미한다. 결국, 우리는 세슘 133 원자가 바닥상태와 들뜬상태를 오가며 9 192 631 770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1초를 잴 수 있다.

정밀하게 1초를 재보았자 어디에 쓰이겠나 싶겠지만, 세슘 등의 원자를 이용한 원자시계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과 밀접해있다. 특히나 GPS 인공위성의 경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영향으로 매일 38.6 마이크로초의 시간 오차가 생기는데, 이를 보정해주어야 우리가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미난 생각을 해보았다. 화성의 자전 주기는 우리보다 40분 정도 긴 24시간 39분 35초인데, 만약 그들도 해가 뜨고 지기까지로 시간을 정했다면, 화성인의 '1초'는 우리에겐 1.02초였을까?[3] 아니면 그들만의 다른 기준이 있었을까? 어떻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원자라는 불변한 기준이 있기에, 지구인들에게도, 화성인들에게도, 어딘가 멀리서 왔을 외계인들에게도 똑같은 '세슘 133 원자의 두 바닥상태 사이의 전이에 해당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라는 것이다.



3) 우리의 하루는 86400초. 화성인 하루는 88800초. 88800 ÷ 86400 = 1.02777777...

2020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무엇일까

10114 박 선

몇천년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를 뽑자면 단연코 종이 위에 글씨를 적어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순한 지식전달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책. 하지만 요즘은 지식전달매체가 디지털매체로 무게가 실려가고 있는 변화의 시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지원자들은 무슨 책을 읽었을까? 이번 기사에서는 2020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들에 대해 알아본다.

1위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 쟝 지글러

총 365명이 읽은 책이다. 1위는 2019년도와 비교해서 한 단계 상승한 모습을 보인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이다. 이 책의 저자는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 쟝 지글러로, 기아의 원인과 실태를 대화 형식으로 서술한 책이다. 기아의 원인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런 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저자의 주장이 실려 있다. 결국 저자는 우리들에게 서로 돕고 연대하는 자세를 가지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신을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2위 미움받을 용기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총 291명이 읽은 책이다. 2위는 1위의 자리를 내준 "미움받을 용기"이다. 2014년 아마존 일본 베스트셀러 1위로, 일본 철학자이자 작가인 기시미 이치로와 작가 고가 후미타케가 쓴 책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정신의학자인 아들러의 심리학을 풀어 쓴 책으로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아들러의 철학을 반박하는 청년과 청년의 주장을 반박하는 철학자의 대화로 우리들의 가치관에 물음을 던지는 책이다.

3위 침묵의 봄 – 레이철 카슨

총 254명이 읽은 책이다. 3위는 "침묵의 봄"이다. 미국의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첼 카슨이 쓴 책으로, 살충제 혹은 제초제로 쓰인 화학물질이 자연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쓴 책이다. 이 책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위험을 본격적으로 경각시켜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 4위 정의란 무엇인가 – 마이클 샌델

총 220명이 읽은 책이다. 4위는 하버드에서 Justice라는 강의로 유명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이 '정의'에 관련하여 쓴 책인 "정의란 무엇인가"이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정의을 살펴본다. 또한 다양한 딜레마와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생각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 책 내에서 확고히 내리지 않은 정의에 대한 정답을 도출하게 해주는 책이다.

공동 4위 데미안 – 헤르만 헤세

총 220명이 읽은 책이다. 공동 4위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라는 구절로 유명한 "데미안"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독일의 문호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다. 청년의 성장 과정을 담은 책으로, 불안하고 경직된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던지는 책이다.

6위 죽은 시인의 사회 – N.H. 클라인바움

총 209명이 읽은 책이다.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작가가 각

색한 책이다. 오직 공부밖에 모르고 살아온 미국의 명문 사립고에 새로 부임한 '키팅'이라는 교사가 딱딱하고 엄격한 분위기의 학교와 맞지않은 교육을 펼치고 단순히 외우는 공부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학습을 강조한다. 이런 키팅 교사가 학교에서 일으키는 일들을 보며 우리들에게 진정한 교육, 학습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다.

7위 엔트로피 – 제레미 리프킨

총 201명이 읽은 책으로, 엔트로피는 열역학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저 과학 관련 도서가 아닌 엔트로피라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고 이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분야를 분석 및 예측한 책이다.

공동 8위 이기적 유전자 – 리처드 도킨스

총 200명이 본 책이다. 과학 분야의 대표적인 책으로, 인간은 자신의 후손에게 유전자를 남기려는 본능을 가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라는 내용의 책이다. 그럼에도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데 유리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공동 8위 부분과 전체 –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총 200명이 읽은 책이다. 양자역학의 시초가 되는 연구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학문적 자사전이다. 양자역학 발전에 영향을 끼친 많은 과학자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한 학문의 탄생의 과정을 보여 준다.

공동 8위 1984 – 조지 오웰

이 책 또한 총 200명이 읽은 책이다. 1949년에 출판된 책으로 '우리들' , '멋진 신세계'와 함께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로 1984년을 전체주의가 만연한 사회로 생각하고 만들어진 미래소설이다. 세계가 세 나라를 통해 분할 통치되고 있는 세상을 통해 소설 속 국가는 기록 조작, 감시 등을 통해서 집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전체주의와 갈등하며 이야기가 진행되는 소설이다.

그 뒤로는 11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195명)를 시작으로 12위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193명), 13위 변신(프란츠 카프카, 173명), 14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 170명), 15위 아픔이 길이 되려면(김승섭, 165명), 16위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155명), 17위 페르마의 마지막정리(사이먼 싱, 142명),18위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클라우스 슈밥, 130명), 19위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 126명), 20위 코스모스(칼 세이건, 118명)로 마무리 되었다.

도서목록 리스트

성별혐오와 싸우는 법

20101 강민수

ㅋㅋㅋㅋㅋ김치녀 만나는순간 인생 나락으로 떨어짐

(여성혐오 발언)

한남 생태가 미개해서 그런것 같음. 서열이 위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ㅇㅇ

(남성혐오 발언)

인터넷을 보다 보면 위와 같은 성별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성별'에 관한 내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성별혐오 표현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온라인상에서 위와 같이 성별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우리 보인고 학생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성별혐오표현이 부쩍 늘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슷한 성향,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일부 커뮤니티는 극단적인 성향을 띠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혐오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일X, XX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들은 강한 여성혐오 성향을 띠었다. 여성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담긴 은어를 사용하는 등 여성에 대한 혐오를 스스럼없이 표현했다. 이들의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커뮤니티들도 등장했다. 워X드, 메XX아 등은 여성 이용자 비율이 높고, 극단적인 남성혐오 성향을 띠었다. 이런 극단적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도 혐오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성별 혐오는 바이러스처럼 퍼지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은 주변 친구가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보다가 어느새 똑같은 욕설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성별 혐오표현도 욕설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표현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그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성별혐오 표현은 이 현상을 더욱 심하게 일으켜, 우리 사회에 성별혐오가 점점 많아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청소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의 성별혐오 표현에 노출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2019년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중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68.3%였고, 그들 중 온라인으로 혐오표현을 접한 비율은 82.9%에 달했다. 또한, 청소년의 4명 중 1명 정도인 23.9%가 혐오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혐오표현 사용 청소년의 53.9%가 '재미나 농담'으로, 57.5%가 '남들도 사용하니까' 혐오표현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객관적인 통계자료 역시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및 사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위 자료에는 성별혐오 뿐만 아니라 인종혐오 등 다른 종류의 혐오표현도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큰 혐오표현이 성별혐오이기 때문에, 혐

오표현에 노출된 청소년 중 다수가 성별혐오 표현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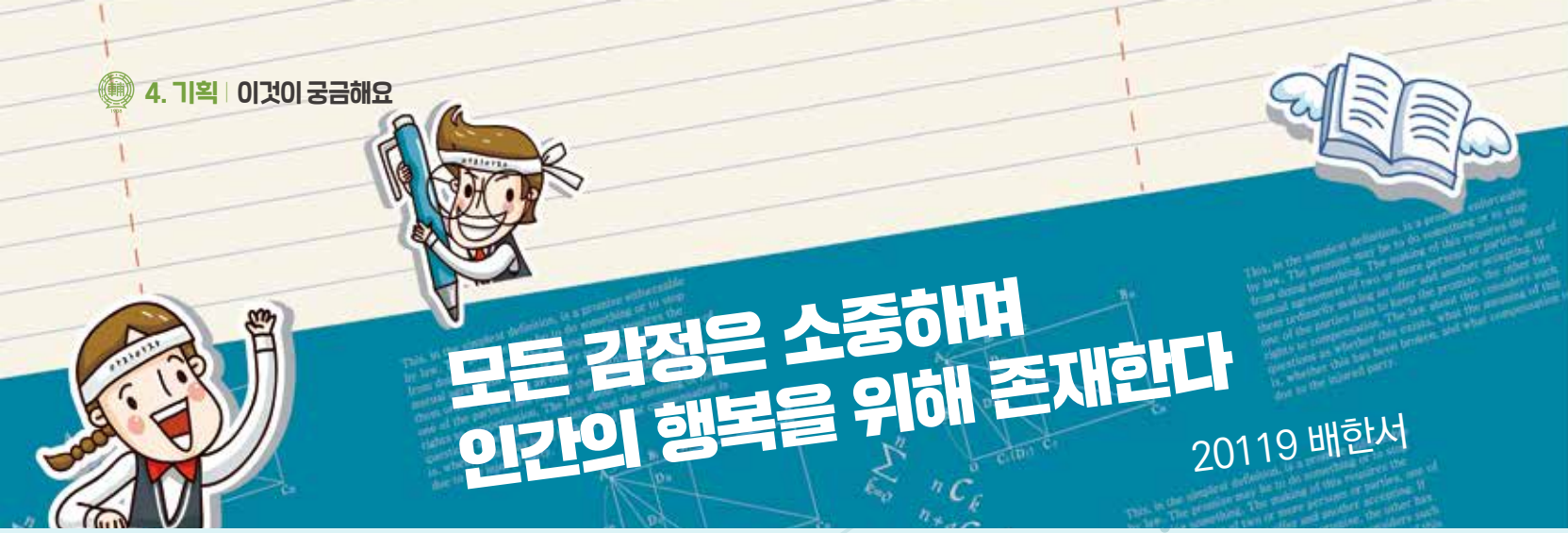
물론 사회에서 성별혐오 표현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사회적 문제를 단기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혐오표현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당장 만들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성별혐오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인고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SNS를 사용하던 중 어떤 여성이 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한남('한국남자'에 대한 비하 표현)들은 군대에 말뚝이나 박지 왜 사회에 나와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다."

대다수 학생들은 남성혐오 표현과 군인 비하 표현이 동시에 사용된 이 문장을 읽으며 분노를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글을 보았을 때, 댓글에 똑같이 여성혐오 표현을 섞어가며 작성자를 비난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식일까? 그렇지 않다. 앞서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낳는다. 만약 혐오에 다시 혐오로 대응한다면, 위 글을 쓴 사람은 다음에 더 심한 남성혐오 표현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성별혐오 표현을 봤을 때, 무시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논리적 반박의 경우, 혐오표현 사용자에게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 이미 '혐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사람은 논리적 반박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논리적 반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혐오표현을 쏟아낸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 성별 혐오 같은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애초에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의 성별 혐오와 젠더 갈등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더 자극적이고, 더 공격적인 성별 혐오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요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혐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보인고 학생들은 위의 대응방법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 그중 특히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별혐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보인고 학생들이 성별혐오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올바른 성 관념과 양성평등 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모든 감정은 소중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20119 배한서

보인고등학교 학우 여러분, 올해 잘 보내셨나요?
보람차고 값어치 있던 한 해가 되었기를 바라며 영화 하나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대부분 제목은 들어봤을 법한 영화인데요, 2015년도 픽사의 야심작이었던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감정들

인사이드 아웃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행동들을 조종하는 감정들을 의인화 시킨 기발한 시도를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본래 계획은 26개 였지만, 복합적인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난해 하지 않게 5개의 감정으로 간추렸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간추려진 감정들을 기쁨, 슬픔, 분노, 까칠함(disgust), 소심(fear)입니다. 디들은 제어 타워에서 주인공인 라일리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감정들(주인공)

기쁨이(joy)

감정 중 가장 먼저 생겨난 감정의 리더로 담당하는 분야는 우리가 기쁨, 긍정적인 사고, 욕망 충족을 할 수 있게 하는 낙천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기쁨이라는 정서만을 가지기 때문에 주인인 라일리가 무조건 행복하게만 해줘야 하고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슬프고 우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강한 신념과 강박관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슬픔이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슬픔이(sadness)

감정들 중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를 맡는 본인의 정체성이 슬픔인 탓인지 항상 축 쳐져 있고 비관적이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는 작중에서 주고자 한 교훈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버럭이(anger)

다른 이름으로는 분노라고도 하며, 보통은 일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깊게 관여하는 역할입니다.

까칠이(disgust)

까칠함과 경멸이 주된 성격이며, 직역하면 혐오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할로는 생리적 거부, 까다로움, 짜증이 있으며, 육체적,

사회적으로 병드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며, 라일리의 선호나 취향에 가장 깊게 관여합니다. 시선에 신경을 쓰거나 패션에 신경을 쓰는 등 감정들 중에서는 가장 포괄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심이(f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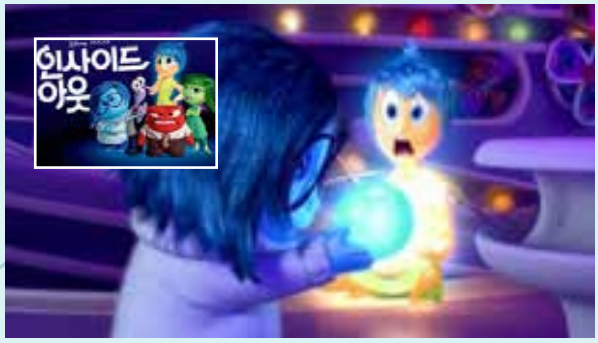
불안함 및 초조함을 담당하는 감정입니다. 안전주의자. 하지만 정도가 지나쳐서 뭐든 겁부터 먹는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움, 두려움, 불안의 역할을 가지는 몸개그 캐릭터입니다.

라일리

감정들의 주인이자, 그 결정에 따르는 행동의 주체입니다. 작중에서는 그 주체가 라일리이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라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줄거리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고 그곳에는 365일을 일하는 다섯 감정 기쁨, 슬픔, 분노, 소심함, 까칠함. 이 다섯 감정에 살고 있습니다. 이사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라일리의 새 학교 첫날 기쁨은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슬픔을 배척하는데요, 그렇게 잘 흘러가던 중 슬픔의 실수로 핵심기억의 감정이 슬프게 바뀌었고 그를 바로 잡고자 하다 기쁨과 슬픔을 본부에서



튕겨나오게 됩니다. 그 동안에 기쁨은 라일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대부분의 감정을 기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본부를 이탈하게 되자 라일리의 마음 속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라일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쁨과 슬픔이 본부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2년간의 기억을 모은 엄청난 규모의 미로같은 기록저장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본부에 남은 감정들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가출을 할 생각하며 가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라일리의 인격과 관련된 것을 담당하는 본부 밖의 섬들(농담, 정직, 우정, 하키, 가족)중 가족을 제외한 섬은 다 무너져버리게 되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이들은 본부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애씁니다.

교훈

모든 감정은 소중해하고 존중 받아야 하며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보통 슬퍼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여기고 감추려고 노력하지만 슬픔이라는 감정 또한 인정해야 하며 기쁨은 슬픔과 함께 있으면 극대화 되고 오히려 조화롭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슬픔이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이 더 성숙한 나를 만들고 어떨 때는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슬프지 않기 위해 슬픔을 억지로 참는 일,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슬퍼하는 것도 보인고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감정 해소에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특징과 느낀 점

정말 전 연령이 봐도 좋을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유치하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감정이 의인화 되고 싸우기도 한다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흥얼거리는 중독적인 광고 cm이나 음식 선호에 따른 감정 등 공감이 잘 가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픽사의 이러한 상상력이 정말 놀라웠고, 신박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적인 감정과 그 결과 등에 대해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적이고 아기자기한, 공감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보인고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고픈 영화입니다! 시험이 끝났거나 한가할 때, 울적할 때 등에 인사이드 아웃, 한 번 감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Boin High

School

#5

수업 탐방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
BOIN HIGH SCHOOL

2021 예술 프로젝트 '함께'

촛불 하나

2021 보인고등학교 함께 예술 프로젝트

따로 또 같이

지속되는 COVID-19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인고등학교 '함께' 예술프로젝트를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사회의 온도를 올리고, 마음을 담은 한 사람의 노래와 그림이 모여 큰 희망으로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모집대상 (노래부문)

보인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누구나

(미술과 음악 정규 교과시간을 활용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보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미술, 음악 수업시간에 안내한 방법으로 모두 참여)

모집기간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영상 촬영기준

1. [보인아이]-[교과수업]-[교과수업 자료실]-[음악] 촛불하나 MR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음원을 다운받아 연습
2. 가로 촬영 필수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고 촬영)
3. 목소리만 영상에 담기(반주는 이어폰으로 듣기)
4. MR 시작부터 끝까지 부르기(중간에 끊지 않기)
5. 개인 촬영(여러 명 촬영 불가)

영상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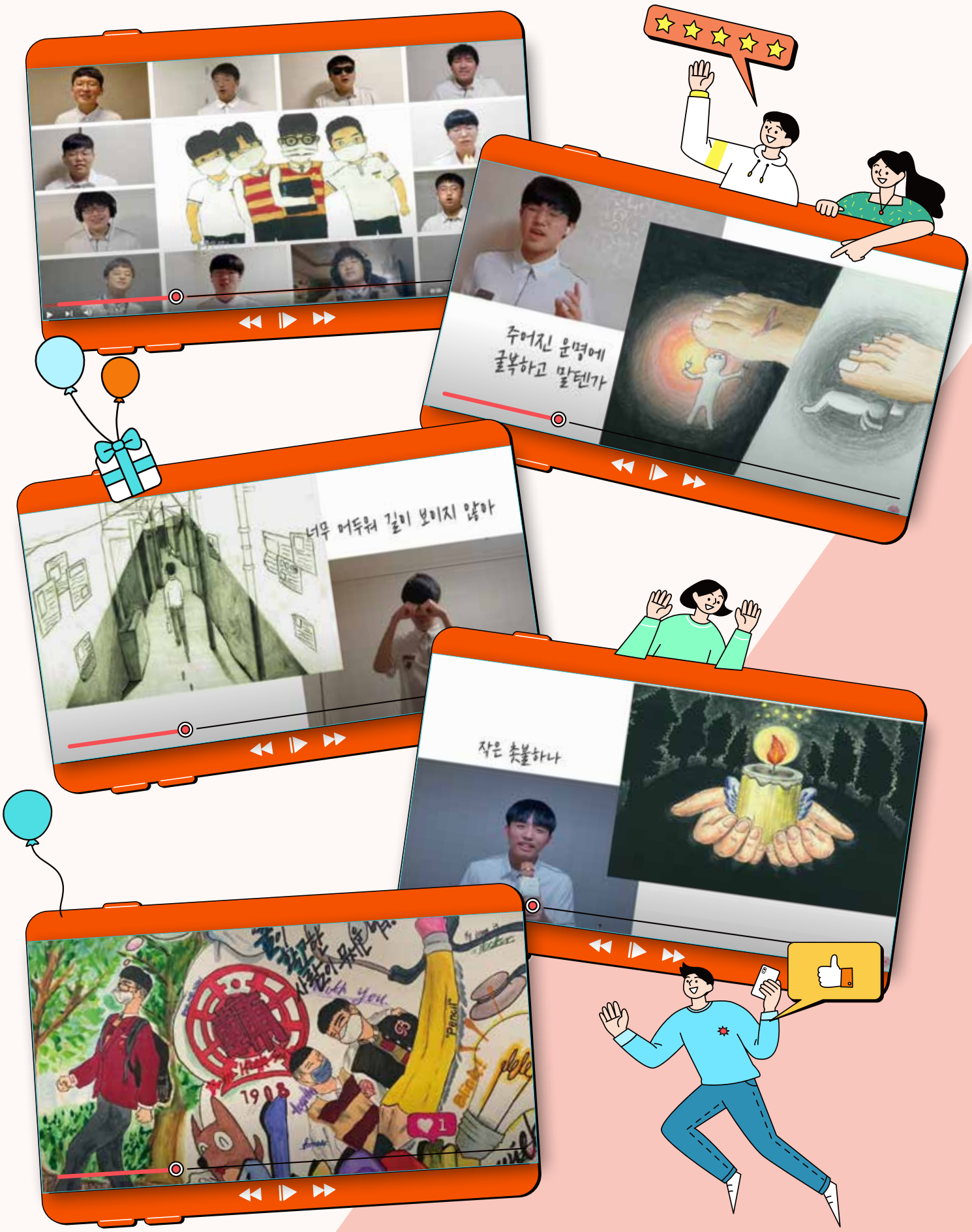
USB에 담아 2교무실 한송이 선생님께 제출
(학부모님께서는 학생을 통해 제출)

선정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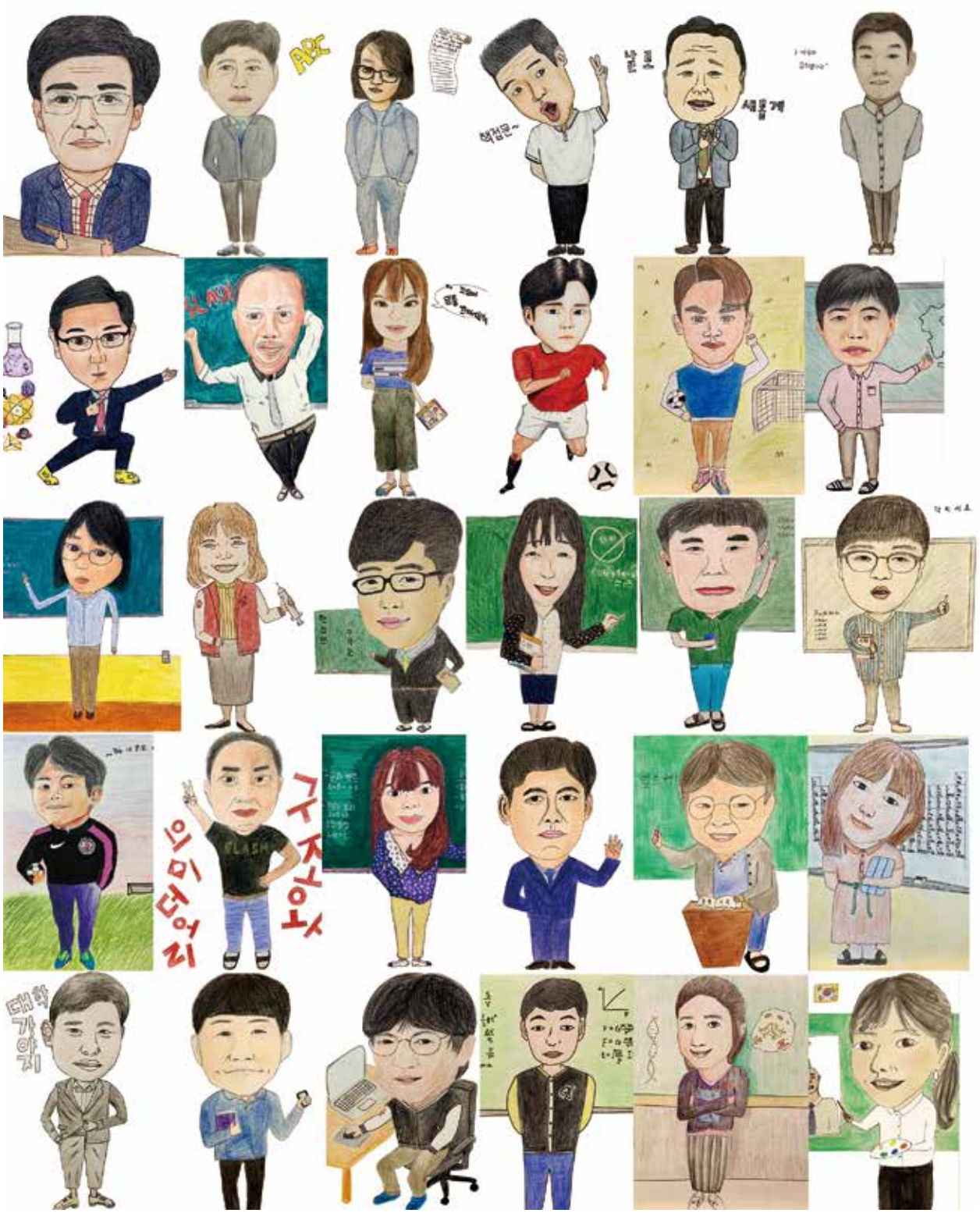
노래를 못해도 창의적인 영상이라면 선정될 수 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바른 음정과 발음, 밝은 표정
- 정확한 박자와 리듬
- 창의적인 영상, 유쾌한 영상
-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상

미술-음악융합프로젝트

YouTube
QR(예술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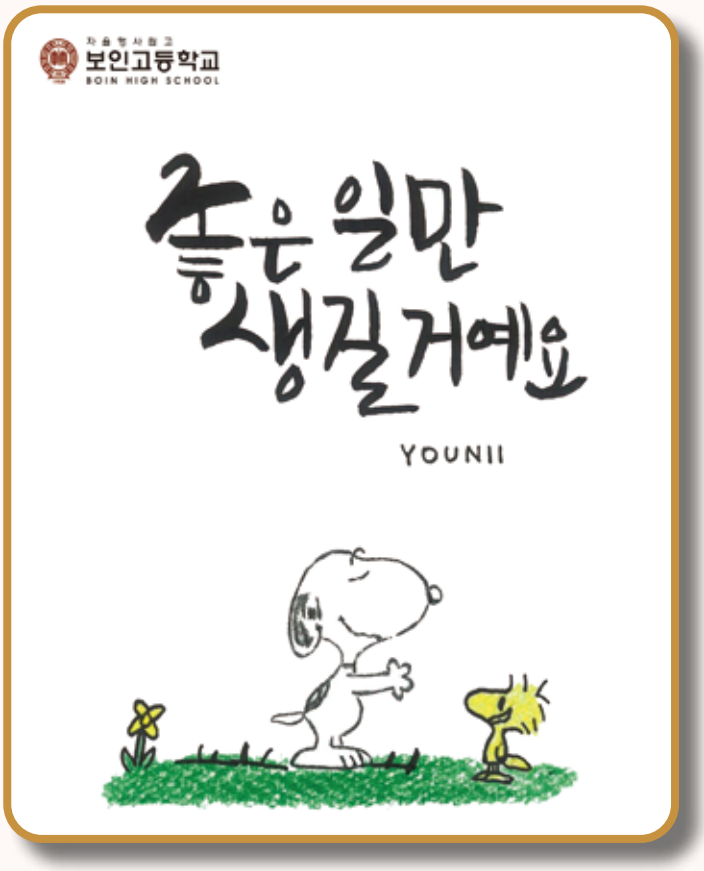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텐가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작은 촛불하나

선생님 캐리커쳐 ❶



선생님 캐리커쳐 ❷

선생님 캐리커쳐 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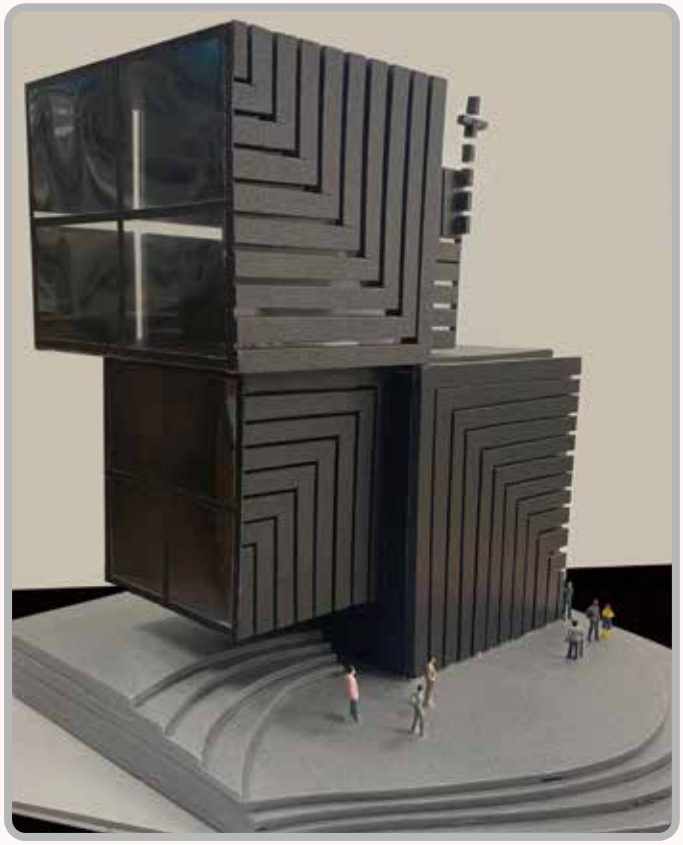
스승의날 엽서_30817 이윤서作

스승의날 엽서_31117 신민규作

스승의날 엽서_31214 송찬민作

아트콘테스트-건축 부문(금상)_21003 김규민作

아트콘테스트_건축 부문(동상)_21019 이승민作



아트콘테스트_건축 부문(은상)_21120 우종건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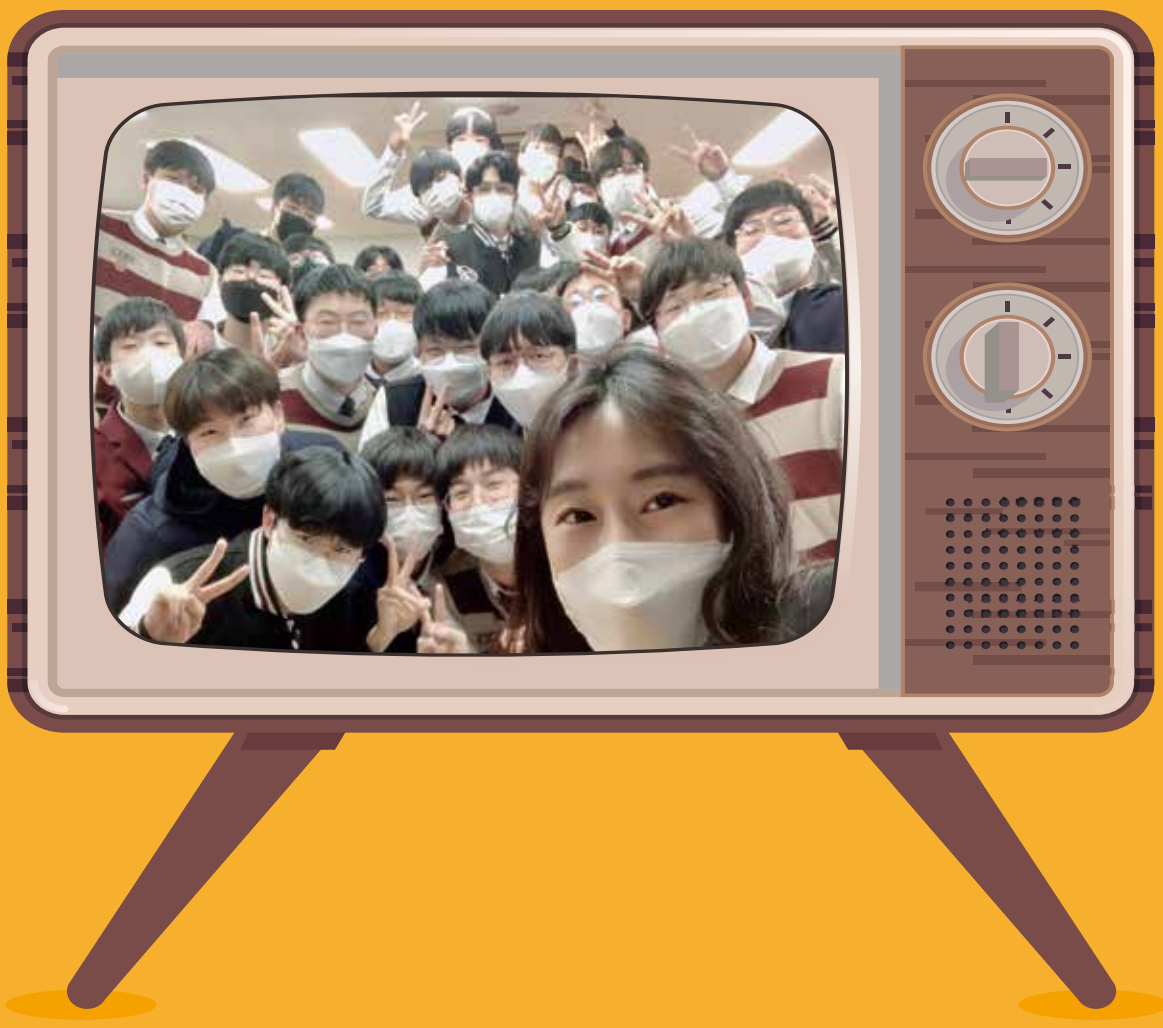
작품전시❶

작품전시❷

Boin High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쉽게 위로하지 않는 대신에
쉽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다.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 작가의 말에서



School

6

우리들의 생각

보인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1. 보인고등학교에 대한 첫 인상

- 우와 보인고다~
- 보인중 출신이라 너무 익숙했다
-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은 이유로 보인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들어와서 며칠간 학교생활을 해보니 상냥하시고 훌륭하신 선생님들도 너무 많았고, 친절하고 좋은 친구들도 정말 많았다.
- 공부에 미친사람들이 찾아오는 괴물 학교
- 빡센학교
-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학교 외관과 넓은 운동장이 이게 자사고라는 느낌을 주었다
- 공부를 열심히 하는애들이 많다
- 잔디

2.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 스타워즈
- 하이큐 1기
-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 ~천재들의 연애 두뇌전
- 마다가스카의 펭귄
- 로건, 위플래쉬, 카우보이 비밥, 원령공주
- 007 시리즈
- 클레멘타인
- 슈렉 – 보인고 학생들을 닮았다
- 모가디슈
- 스파이더맨
- 듄

3. 지난 1년 동안 '보뽕'에 차오른 경험이 있습니까?

- 아직은...너무 대입에만 신경쓰니까 일반고보다 더 적은 경험들과 활동들을 하는거 같아요..
- 보인고가 우수한 것이 아닌, 내가 우수한 것이다.
- 축구 대회 우승했을 때
- 수업시간에 여러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인생 이야기나 여러 말씀들을 들을 때면 '우리 학교에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있구나' 하고 보인고등학교에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며 보뽕을 느낀다.
- 석식말고는 없음
- 축구부의 우승
- 급식이 맛있을 때
- 전학오고 1달동안, 대통령금배 축구대회 우승했을 때
- 2학기 기말 수학 시험 문제

4. 내가 닮은 것 같은 연예인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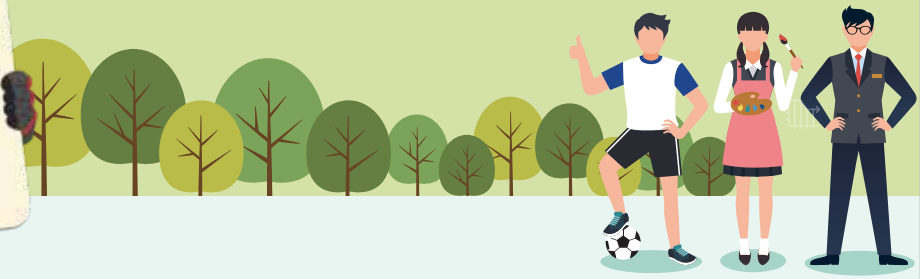
- 서강준 잘생김
- 이승윤(가수) 틀에 박힌 사고를 하고싶어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른 사고를 하려고 함
- 안철수. 공익을 위한 마음이 크고 진로가 비슷하다.
- 정우성, 나랑 생김새가 닮았기 때문
- 잘 모르겠다
- 어릴 땐 유승호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중학교 땐 **중훈남이란 소리를 많이 들음. 현재는 친구들이 차은우를 닮았다고 많이 얘기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정석미남쪽 계열인 정우성씨나 원빈씨를 반반 섞어놓은 얼굴이라 생각함
- 유재석 / 말을 재치있게 잘합니다
- 이광수, 희망사항

5. 단 하루 동안 무인도에 가야 한다면 같이 가고 싶은 선생님은?

- 파이크쌤. 베어 그릴스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존할 확률이 높을 거 같음
- 암살교실의 고로 센세와 김홍민 선생님. 무인도에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정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 김홍민 선생님 / 평소 수업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무인도에 가서 김홍민 선생님과 둘이 대화를 나누며 인생 이야기나 삶의 지혜 등을 얻고 싶다.
- 박강민 쌤
- 이삭쌤
- 김영두 선생님 – 성격자체가 스윗하시고 무인도에서 나를 잘 – 챙겨주실 것 같다.(약간 츤데레 스타일)
- 유보라 선생님
- 김태형쌤 아니면 김승민쌤

6. 고등학생이 되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창의적인 생각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행복한 학교를 가보고 싶었다.
- 이세카이로 환생해서 히로인과 마왕 사냥
- 친구들, 선생님들과 후회, 미련 없이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고 싶다
- 다양한 창의적 프로젝트
- 청춘 즐기기
- 보인고 오기전에는 즐거운 고딩생활이였다면 오고 난 후에는 연애를 간절히 원함
- 잔디에서 축구하기
- 보인 천년제, 남고생활
- 야자째기



1. 코로나 사태가 딱 1주일 동안 멈춘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 축구장, 야구장 등 다중 이용시설을 마스크 끼지 않고 이용하며 마음껏 즐기고 싶다
- 노래방 가기
- 친구들과 마스크없는 여행
- 야구장에 가서 치킨을 먹고 응원가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 놀이공원 놀러가기
-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가기
- 여친과 데이트
- 매일 운동 3시간씩 하기
- 구기대회를
- 잠자기
- 몰?루

2. 하루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되고 싶은 사람은?

- 웨렌버핏
- 없다. 내가 좋고 익숙하며 편안하고 내 몸을 떠날 이유가 없다.
- 최태성 선생님
- 아이유
- 세계테마기행 진행자
- 신(god)
- 대통령
- 이재명
-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부모님의 힘드신 일을 내가 대신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 일론 머스크
- 호날두
- 만수르

3.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급식

- 떡볶이
- 죠리퐁 우유(?)
- 닭고기
- 햄버거. 석식 중에 있었는데 '역시 자사고'하는 생각이 드는 맛있는 급식이었다.
- 스모크 치킨
- 석식으로 나왔던 일본 라멘
- 치토스맛나는 떡갈비
- 오늘 먹은 흰 쌀밥과 국밥. 역시 이밥에 고깃국이 최고다.
- 처음 먹었던 급식 (최악으로 맛없었음)
- 짜장향 밥
- 보인고의 시그니처 메뉴 치킨마요덮밥

4. 10년 뒤에 만나고 싶은 선생님과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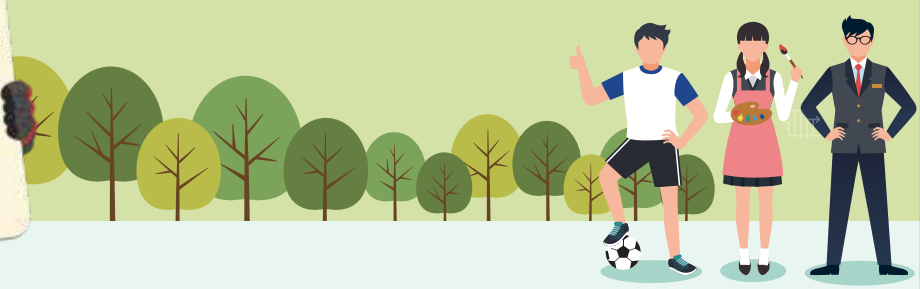
- 일본어쌤
- 이영석 선생님. 그때쯤이면 준비하던 임용고시에 합격하셨을지 궁금해서 그러하다.
- 김민준선생님, 진로에 대해 여러 조언을 듣고 싶기 때문
- 김유수쌤, 결혼 육아에 대한 조언
- 김승미 쌤. 성격도 좋으시고 수업자료도 잘 만드셔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이다. 10년 후에도 보인고에 계신다면 만나뵈러 가고 싶다.
- 김태형쌤 재밌어서
- 이명원선생님.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라서
- 김태형 선생님. 되게 다정하시고 나중애 성공하고 나서 찾아뵈면 기뻐하실 것 같아서.
- 서정민 선생님, 공교육의 나태함에 찌들지 않은 선생님이자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선생님이기 때문
- 김승미쌤 : 10년 후에는 뭔가 지금보다 훨씬 발전하시고 멋진 선생님이 되어있으실 것 같다. 또, 승미쌤의 수업을 들으며 많은 추억들이 쌓였던 점도 좋았다.

5. 이과가 생각하는 문과는? 문과가 생각하는 이과는?

- 문과는 공부 못해서 도망친 집단
- 경영빼면 시체
- 필자는 이과지만 문,이과라는 구분이 의미가 있나 하고 의심하며 개인적으로 선택과목이 싫다. 고등학교까지는 다 배우고 대학은 선택인 세상이 왔으면 한다.
- 문과는 이과를 미래퐁퐁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과는 문과를 유식한 백수라고 생각한다
- 문과가 생각하는 이과: 나보다 수학 못하면서 문과 무시하는 애들 엄청 많음
- 그저 -문-
- 영어 잘하는 사람들

6. 교장선생님이나 이사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일

- 딱히 없다. 다만 현상유지만을 부탁드릴 뿐.
- 도서실을 왜 구석찌에 배치하셨나요.. 접근성 좋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 책상이랑 의자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ㅠㅠ
- 급식 더 야무지게....
- '송파 유일의 명문자사고' 보인고등학교를 운영하시는 김석한 이사장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엉덩이가 편안한 의자와 넓은 책상,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야간자율학습이 우리 보인고등학교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 다른건 다 좋은데 시설만 좀..
- 학교 시설 좀 깨끗하게(특히 인재관 책상이랑 바닥도 청소당번을 따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수능을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과목

- 생명과학1
- 수학
- 국어
- 화I 생I / 하기도 싫은데 해도 안 오름
- 전과목
- 국어
- 탐구
- 화1생1 동시에 선택하면 망함
- 국어영어수학과학과학쉬운게어딨습니까증말
- 아랍어 1

2. 내가 선생님이라면 가르쳐보고 싶은 과목은?

- 지구과학
- 수학(미적인데 확통을 곁들인)
- 창체. 자습만 시키니까 가르치는거 없음
- 윤리와 사상
- 체육
- 미적
- 지구과학 딱대
- 수학 혹은 물리학
- 화학1

3.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나만의 특징

- 수학 70분컷 가능
- 도벽
- 자습하다가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면 다른 애들도 다 공부하나 미어캣마냥 두리번거린다
- 고3들은 그런거 없다
- 수능 14일 남았는데 피씨방감
- 뱃살(?)
- 잠을 7시간씩 자도 피곤함
- 배고프다
- 객관성 100%
- 고3이라서 정신 나간게 아니라 원래 나가있었다는 독보적 미친새
- '나' 다움

4. 올해 가장 힘드셨을 것 같은 선생님

- 다
- 김보성 선생님
- 김응천 쌤. 온갖 거 가지고 잔소리하시느라 입 아프실 거 같다.
- 결혼하시는 지소현 쌤~
- 없다
- Mr.Pike

- 김시형 선생님
- 전보미
- 아유 다들 수고해주시느라 힘드셨겠지요~~~허허허참 누구 한분을 뽑을수야 있겠습니까
- 김태훈 선생님

5. 수능이 끝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

- 대한민국 탈출
- 밤새도록 폰 잡고 싶다
- 재수한다면 재수 준비
- 야수
- 그날 저녁을 맛있게 먹는 것
- 술, 담배
- 채점
- 이틀연속으로 잠자기
- 대치동 카페에서 여유부리며 고통받는 수험생들 지켜보기
- 보인대학교설립
- 이터널스를 고냥 아이맥스로다가 고냥 호로록 말아서 쩝쩝쩝
- 롤

6. 보인고에게 한 마디

- 보인고 파이팅!
- 정말...감사합니다
- 확실히 보인고를 다니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 때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날 한층 더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고마웠습니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길

김기림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 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부라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 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 빛에 혼자 때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함뿍 자줏빛으로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다녀갔다.
가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에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앓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낳은지를 모른다는 동구 밖 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 새 어둠이 기어나와서 내 뺨의 얼룩을 씻어 준다.